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병 왕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추상적 형태를 통한
현대인의 감정과 색채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이 승 은

추상적 형태를 통한
현대인의 감정과 색채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조 병 왕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이 승 은

인 준 서

이승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 이 춘 옥 (인)

심 사 위 원 임 상 빈 (인)

심 사 위 원 김 정 연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에서 진행되었던 연구는 2017년도 석사 청구전 'Circles'에 전시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속 추상적 이미지 형상의 배경이 되는 내용적 측면과 시각적으로 표현되어지는 형식적 측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본인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현대인이 느끼는 감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내재된 본질의 감정과 사회의 환경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감정적 측면에 대해 분석하고 탐구하여 이를 시각화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고도화, 전문화 양상은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창출하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그 과정 속에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정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감정적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렇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것을 새로 정의하는 용어가 바로 '현대병'이다. 현대병이란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복잡화, 다양화, 기능화 함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정신병, 공해병, 직업병, 성인병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¹⁾로 과거에 없던 병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 감정과 사회적 감정이 대립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에게 내재된 근원적, 본질적 감정의 의미와 존재가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본인은 이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 감정을 깊이 성찰하고 자각하여 사회적 감정과의 관계 속에

1) [네이버 국어사전]-현대병(現代病)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2356800> (2017.03.20.검색)

서 심리적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심리적, 감정적 해소에 관한 도움이 어떠한 표현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조사하고자 한다. 그 모색 방향은 기본적 조형요소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형상화하며, 본인은 형상화된 감정의 주요 소재인 원의 의미와 개념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작품을 도출해내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감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비시각적 형상을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시각화시키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다 더 집중해가는 현대인들에게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비시각적 감정에 주목하게 하고자 한다. 본인은 본질적 감정을 추상적 원의 형태로 표현한다. 추상적 원의 형태는 오일 파스텔을 주재료로 하여 화면 위에서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축적되는 수많은 원들로 구성된다. 이 원의 형상은 현대 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적 스트레스의 표출이자 동시에 해소시키는 추상적 형태이다. 본인은 이러한 추상적인 원의 형태로 본인뿐만 아니라 나아가 작품을 감상하는 이에게도 근원적 감정의 표출을 가능하게 만들하고자 한다. 또한 작품에서는 추상적 원의 형상과 함께 보다 평면적인 사회적 감정이 표현되어 지는데, 본인은 이 두 감정들의 대비되는 모습 관계를 형태와 색으로 나타내어 보여준다.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원형의 본질적 감정과 그 주위를 둘러싼 보다 평면적인 사회적 감정의 모습으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작품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현대인이 겪는 고통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색채심리를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며, 색이라는 요소를 통해 본인 작품세계에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인은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본질적 감정으로 표현된 원형의 의미와 역할에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추상적 형상을 주요 이미지로 하여, 개인과 사회적 감정의 상관관계를 오일 파스텔로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장시키고자 한

다. 그리고 추상적 이미지의 표현방법, 화면구성 방식의 변화를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작품의 바탕이 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의 심리, 감정에 관한 내용 설명과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작품에 활용한 주된 조형적 요소를 통해 본인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본인만의 감정적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 본인은 작품의 내용적 의미와 설정 방향을 견고히 하고,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인용하여 본인의 작품에 더 많은 발전을 위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5
1. 작품 형성 배경	5
1)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	5
2) 사회적 고통으로부터의 심리적 감정해소	8
2. 작품 내용 연구	13
1) 개인과 사회적 환경과의 감정관계	13
2) 감정과 색채의 심리적 연관성	16
3. 작품 조형 연구	21
1) 오일 파스텔을 통한 심리적 감정표현	21
2) 추상적 형태를 통한 색채와 감정형상	25
3) 반복적 행위를 통한 사색과 명상	35
4. 작품 분석	39
III. 결론	72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Red, oil pastel on panel, 72.7x90.9cm, 2016

[작품2] Yellow, oil pastel on panel, 72.7x90.9cm, 2016

[작품3] Yellows, oil pastel on panel, 72.7x90.9cm, 2016

[작품4] Reds, Oranges, Yellows,
oil pastel on panel, 72.7x90.9cm, 2016

[작품5] Pink and Black,
oil and oil pastel on panel, 91x189.5cm, 2016

[작품6] Yellow and Black I ,
oil and oil pastel on panel, 130.3x130.3cm, 2016

[작품7] Yellow and Black II ,
oil and oil pastel on panel, 130.3x130.3cm, 2016

[작품8] Black, oil and oil pastel on panel, 130.3x130.3cm, 2017

[작품9] Red and Black,
oil and oil pastel on panel, 130.3x130.3cm, 2017

도판 목차

- [도판1] 마크 로스코(Mark Rothko), 3번(No.3),
oil on canvas, 137.8x172.7cm, 1953
- [도판2] 마크 로스코(Mark Rothko), 주황과 노랑(Orange And Yellow),
oil on canvas, 180.3x231.1cm, 1956
- [도판3] Yellow, oil pastel on panel, 72.7x90.9cm, 2016
- [도판4] 크레파스
- [도판5] 오일 파스텔
- [도판6] 니코스 가이팍티스(Nikos Gyftakis), 자화상 V(Self portrait
V), oil pastel on canvas, 190x150cm, 2004~2005
- [도판7] 색상환표
- [도판8] 반복적 선의 중첩으로 인한 원형 단면도
- [도판9] 쿠사마 야요이(くさまやよい, Kusama Yayoi),
호박들(Pumpkins),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urethane
paint and metal, 가변크기, 2013
- [도판10] 쿠사마 야요이(くさまやよい, Kusama Yayoi),
튤립에 대한 나의 모든 사랑이 담겨있어, 나는 영원히 기도 한다
(With all my love for the tulips, I pray forever),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urethane paint and
stickers, 가변크기, 2013
- [도판11] 권순익(權純益), 무아-그림자(Absence of Ego-Shadow),
혼합재료, 60x60cm, 2012
- [도판12] [작품3]의 제작과정 순서도

I. 서 론

본인은 현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감정을 본 연구에 중심으로 삼는다. 또한 본인은 감정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를 추상적 원의 형상 이미지로 시각화 시킨다. 작품에서 시각화된 감정적 원의 추상적 형태는 본인의 직관과 무의식적 반복 행위를 통해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 형태는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여 개인이 사회적 환경에서 느끼는 감정과 내면의 본질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그리고 본인은 두 감정의 충돌을 경험하고 관찰한 모습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서술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각각의 개인마다 서로 다른 감정으로 표현된다. 또한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외부적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대부분 자신의 본질적 감정을 잊어버린 채 사회적 감정에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인간의 본질적 감정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시각화시키고자 하며, 이를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한다. 인간의 감정이란 비시각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구체적인 감정 상태를 특정한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제한시키기 보다는 원형의 추상적 형상으로 그려내어 그에 대한 의미와 상징을 표현하고 확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작품에서는 본질적 감정과 사회적 감정을 추상적 형태로 이미지를 상징화하여 표현함으로써 두 감정의 상관관계를 통해 정서의 감정적 부분을 보다 더 부각시키고자 한다.

“우리의 마음, 감정적 위치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순탄할 때, 우리는 대체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예를 들어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비정상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될 때 우리의 마음은 동요를 일으킨다. 사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보다 즉각적인 감정이 더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1724.04.22~1804.02.12)의 말처럼, 인간은 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의도치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이성적 감정으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본 연구를 통해 이성적 감정보다 본질적 감정에 집중하여 사회와의 관계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작품에서는 오일 파스텔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추상적인 인간의 감정 상태를 원의 형태로 시각화시켜 심리적 감정을 표출시킨다. 원의 형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 중에서, 본인은 ‘무한한 순환, 끝없는 심리의 감정적 형태’에 집중한다. 인간의 심리나 감정은 끝없이 연결되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으며, 일렁이고 동요하는 마음과 같이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을 본인은 작품을 통해 추상적 이미지로 시각화함으로써, 작품을 감상하는 이에게 자신의 본질적 감정의 상태를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하여 보여준다. 작품에서는 감정적 요소를 단순한 형태로 시각화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의 색과 감성, 감정이 내재한 조형적 표현 기법을 통해 이미지화된다. 본인은 인간의 감정적 요소를 오일 파스텔을 주요 재료로 활용하여 반복적 행위로 생성되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원의 형상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본인은 작품에서 오일 파스텔을 화면 전체에 중점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재료

2) 최인숙, 『칸트』, 「우리 마음에서 감정의 위치」, (주)살림출판사, 2005.01.3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의 특성과 상징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유년기 시절에 사용하던 크레파스와 비슷한 형태와 질감의 오일 파스텔을 이용하여, 본인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회화적 재료보다 더 단순하고 평범하면서도 일상적인 표현재료를 선택한다. 이처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친근한 재료의 질감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본인이 제시하는 주제의식과 표현방법의 과정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작품을 통해 어린 시절의 순수한 본능적 감정이 내재된 자신의 감정을 발견, 상기시키고자 하며,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억압된 감정을 순간적으로 해소시키고 잠시나마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평안을 주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모색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적 감정과 본질적 감정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고, 그러한 감정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보다 폭 넓은 관점으로 바라본 시각적 표현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본론의 1장에서는 작품 형성 배경과 관련하여 시대적 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 및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내재된 심리적 고통을 제시한다. 또한 색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의 해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되어지는 난색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2장의 작품 내용 연구에서는 작품 속 인간의 감정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감정과 개인의 본질적인 감정과의 관계를 우리의 일상 환경과 마스크를 통해 실제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받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적 측면을 살펴 본 다음, 색을 통한 테라피의 사례를 제시하고 색채감정이 의미하는 바와 연관된 예술가를 비교 분석하여 본인의 작품과 색과의 심리적 관련성을 서술한다.

3장의 작품 조형 연구에서는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된 재료

적 측면과 감정적 이미지에 대한 조형적 구성 원리를 상세하게 서술한다. 본인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성, 작품과 작품과의 연관성 그리고 본인 작품과 관련된 타 예술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한다.

4장의 작품 분석에서는 본론에서 서술한 주제의식과 개념을 각각의 작품에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구체화하였는지, 그에 대한 진행 및 표현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에 서술된 작품의 추상적 형상에 대한 개념과 의미, 표현방식을 되짚어 보며 본인의 작업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확인하여 재고한다.

더불어, 심도 있는 작품 연구를 통해 본인의 발전적인 방향 설정과 미래의 작품을 기대하고 본 논문을 토대로 새로운 길잡이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 배경

1)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

우리 사회는 근대 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달이 진행되면서 발 빠른 사회변동이 이어져왔다. 다양한 시대변동으로 현대사회는 산업화 사회, 관료제 사회, 대중화 사회, 정보화 사회 등으로 표현되어³⁾지는데, 이것은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로 우리의 삶에 풍요를 더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서 사회, 경제적 환경이 점차 악화되어 삶에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면서부터 최근에 많은 문제들을 낳게 되었다. 예를 들면, 청년실업문제나 빈부격차, 고령화 사회문제, 물가상승세, 주택문제 등 사회의 경제발전 수준은 높아져 가지만 정작 개인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흙 수저, 금 수저, 취준생, 삼포세대 더 나아가서는 칠포세대, 헬조선 등 이와 같은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 용어들이 현 시점에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현대사회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과거 1930년의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는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식민지화 될 수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힘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였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물질적으로 또는 불안한 현실에 지속해서 살아오면서 사람

3) 유병선,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와 한국』, (이화, 2004.03.0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p.15.

들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은 계속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1970년대의 유신정권폐지운동, 새마을 운동, 1980년대의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운동 등 국민들의 사회운동으로 조금씩 변화, 발전되는 경제와 사회의 성장을 보며 우리는 희망이라는 끈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발전된 현대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장·단점을 가져왔다. 먼저 장점으로는 새로운 기술과 다른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산업화가 발달하게 되어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이뤄지면서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발달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시작되면서 도시화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정보화, 세계화를 이루어 전 세계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서 개인 및 국가 간의 화합을 구축해 지구촌 사회를 형성하여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반면 위와 같은 발전으로 인해 단점 혹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산업화로 인한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 격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노동자의 빈곤 등이 있고, 도시화로는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환경오염, 범죄, 교통문제, 교육문제, 지역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다. 더 나아가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게 되면서 인터넷 중독,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보이스 피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사이버에 대한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IT강국이라 불릴 만큼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그로 인해 정보화 시스템이 광범위해지면서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개인은 사회에 대한 경계와 불신이 높아지게 되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우리의 심리적인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가중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본인은 과거의 사회적 환

경 속에서도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와 다르게 현재 빠르게 발전된 21세기 사회에서의 불안정한 미래, 실업, 물가상승, 주택, 취업 문제 등을 바탕으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사회적 환경의 감정에 대한 억눌린 본질적 감정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감정’은 문자적으로 “외부를 향한 움직임”을 지칭하며, “감정의 본질”은 어떤 특정한 실재 혹은 사건에 관한 사고내용에 응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은 신체 상태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부가적인 정신적 변화도 야기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압박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내재된 본질적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은 지극히 사사롭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성적인 감정을 먼저 앞세울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 앞에서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감정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인간에게 내재된 본질적 감정은 동물적이고도 본능적인 느낌을 가지는 것으로, 이 감정을 사회 안에서는 이성의 제어와 자의적인 혹은 비자동적인 정신과정을 통해서만 밖으로 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감정은 검토적인 여과과정으로 이미 짜여진 감정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⁴⁾ 이처럼 사회적 공간에서의 우리는 항상 외부의 통제와 벽이 있는 상태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억압된 감정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인은 지금의 사회적 환경에서 느끼는 감정과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본질적인 감정과의 충돌된 사례와 함께, 현대인으로서 그리고 동시대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덧붙여 본인은 이에 대한 감정적 해소방법을 찾고자 하며, 이를 추상적 이미지로 구상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4) 안토니오 다마지오, 『데카르트의 오류』, (중앙문화사, 1999.07.31), p.124-131.

2) 사회적 고통으로부터의 심리적 감정해소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아울러 ‘컬러 테라피’ 라는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완화시키는지 그에 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견해를 통해, 작품에서 예술로써 어떻게 승화시키고자 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현대의 삶 속에서 사회적 환경 요소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 해방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음악 감상, 영화보기, 산책, 운동, 술, 문화체험, 취미활동 등 많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해소시키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처받은 감정적 해소의 방법으로는 화내기, 웃기, 울기, 소리치기, 떨기 등에 의해서 위로를 받기도 한다. 위와 같은 감정해소법은 슬픔이나 고통,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연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일상에서 매일 겪어야 하는 힘들음을 가지고 있기에 잠깐의 취미생활이나 운동 등으로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다른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는 있어도 감정의 내면인 부분까지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 내면의 감정을 본인은 작품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고통의 감정을 해소시키고, 자신의 본질적인 감정을 들여다보며 사회적 압박감에서 벗어난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심리적 감정을 바탕으로, 본인은 오일 파스텔을 사용한 원형의 추상적 이미지를 색과 반복적 형상의 조형요소로 심리적 해소를 가져다주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에 표현된 난색 계열의 색이 사람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색채 감정 이미지의 의미를 집중 분석하여 작품의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

저 색채심리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색들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서적 안정감과 평온한 감정을 가져다주는지 살펴보고 본인의 작품에서 색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요즘의 사회적 환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긴장, 억압, 압박, 피로, 우울증, 불안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달 장애, 기타 정신과적 질환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목받고 있는 미술심리치료 분야가 현재에 많은 이슈로 각광받고 있다. 예전에 없었던 현대병을 치료하는 데에 있어서 미술심리치료는 무한한 치료를 가능하게하기 때문이다. 미술치료는 심리 치료의 일종으로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하여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말로써 표현하기 힘든 느낌, 생각들을 미술 활동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안도감과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되고 내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며 자아 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법이다. 이러한 미술 치료법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노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말로써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거나 꺼려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미술 활동은 유용한 매개체가 된다.⁵⁾ 위와 같은 치료법에서는 색을 이용한 심리치료도 함께 포함되어있는데, 이를 컬러 테라피(Color therapy)라고 일컫는다. 컬러 테라피(Color therapy, 색채 치료)는 ‘컬러’와 ‘테라피’의 합성어로 색의 에너지와 성질을 심리치료와 의학에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삶의 생기, 휴식, 진정, 활력을 키우는 정신적인 요법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여러 의학자들에 의해 컬러를 통한 다양한 치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1세기의 새로운 대체·보완 의학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 노먼 쉘리(Norman Shealy)는 색깔이 있는 광선

5) [네이버 지식백과]-미술 치료(art therapy),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815&mobile&cid=51007&categoryId=51007> (2017.03.02.검색)

을 이용하여 통증과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다. 그는 광선의 자극이 신경 화학적 분비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으며, 뇌가 각각 다른 빈도의 광선과 색깔에 서로 다른 특수한 반응을 하여 심리치료가 가능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색채가 우리에게 주는 반응은 신경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색채학 자료에 의하면 심리적으로 난색에 대해서는 더욱 활발한 자극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노랑색 조의 반응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에 대항해 싸우게 되는데, 아드레날린이 부신에서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 C이다. 비타민C는 대부분 노랑색 과일에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약회사는 노랑색을 피로 회복제인 비타민보조제의 상품 마케팅에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유로 많이 사용한다. 이처럼 노랑색 조의 부드러운 베이지 색은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줄여주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빨강색조가 주는 반응으로, 현대사회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나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로 인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어 우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따뜻한 색조인 빨강계열의 색을 보게 되면 생기가 돌아 감정적으로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 준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심리적으로 우울함을 느끼는 정도가 지나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어 몸의 건강까지 해치기 쉽다. 고로,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계통의 색들을 가까이하고 그 기운을 접하는 것이 좋으며, 삶의 열정과 에너지를 자극하는 빨강이나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의 주황과 분홍, 그리고 생기와 밝음을 주는 노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감정적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⁶⁾

6) 김선현, [네이버 지식백과]-컬러 테라피(color therapy)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880&contents_id=77507

위의 자료를 통해 색은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인은 색을 통해 순간적인 기분의 전환과 감정적 해방을 느끼고자 한다. 색채심리치료는 오늘날 사회에서 급속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색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치료나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색다른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색채심리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색의 인상을 남기게 되며, 개인에 따라 특정한 색에 대해서는 다른 감정을 지닌다. 또한 최근에 컬러 테라피(Color therapy)가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 앞으로 색에 대해 더욱 많은 임상과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발전하게 될 것을 예상⁷⁾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작품에서 난색 계열의 색 사용을 통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작품을 감상하는 이에게 심리적 치유, 해소, 해방감을 가져다주어 잠시나마 힘든 감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자 한다. 덧붙여 본인의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

본인도 또한 현대 사회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일상 속에서 받는 불안한 미래의 모습, 물질적인 문제,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그 외의 심리적 억압, 압박 등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최근에 본인은 어느 한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채용이 되기 전까지는 사회에서 외모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미처 잘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위의 상사로부터 외모에 대한 평가와 비하 그리고 비교를 당한 후로 본인은 감정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상처받은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화장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친구들과 얘기도 나눴보는 등 많은 것들을 해 보았지만 잘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은 작업의 재료들

(2017.03.11.검색)

7) 김선현, 「색채심리학_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 (이담 북스, 2013.04.2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을 사러 화방에 갔었는데, 화방에 들어가는 순간 다양한 색들로 펼쳐진 물감이나, 파스텔, 색연필, 펜 등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경험을 하였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쳐 온 것들이었는데 다양한 색들을 보게 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감정의 고통이 해소가 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색들과 재료들처럼 사람도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본인은, 이렇게 단순한 색으로도 감정이 안정되는 체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이란 사회적 동물이기에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본인은 자신 스스로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에야 자신의 본질적 감정을 바라보며 그에 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인의 경험을 의거하여, 본인의 작품에 사용된 색을 통해 각자 자신의 본질적인 감정을 들여다봄으로서 감정적 해소를 가져오고자 한다. 또한 작품에서의 난색이 뜻하고 있는 상징 또는 의미, 원의 형태, 반복적 행위를 통한 추상적 형상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하여 조형적인 형상으로 심리적 해방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따라서 본인의 작품에 보여 지는 이미지들을 재정립하여 관람객에게 기분의 전환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주고자 한다.

본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본질적인 감정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억압의 감정을 추상적 형상으로 표현하면서 둘의 관계에 접근한다. 순수한 조형요소만을 가지고 시각화되어지며 단순하고도 간략한 형태의 이미지는 관람자로 하여금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본질적 감정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 따라서 본인은 감정이라는 비가시적인 대상의 개념을 어떻게 구현하여 시각화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작품 내용 연구

1) 개인과 사회적 환경과의 감정관계

빠른 산업화로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 현대사회는 대부분의 공간이 정형화되고 일률적인 틀 속에서 쉼 없이 발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틀을 가진 사회의 형태는 조금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원이나 삼각형이 아닌 보편적으로 사각형의 형상을 갖춘 모습이다. 사각형이라는 형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근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를 겪으면서 규격화된 내부구조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답답하고 딱딱한 감정을 더 가속화시킨다. 예를 들면, 더 이상 들어설 곳 없는 아파트나 상점들, 시내의 고층건물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들로 우리의 삶에서 개인의 감정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사회로부터 느낄 수 있는 외부적 감정으로, 이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울음을 주기도 하며 개인의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말해 준다.

2016.12.05~2016.12.13에 TV채널 EBS1 다큐프라임에서는 현대사회 모습의 현실을 반영한 <감정시대>는 5부작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현대 사회의 모습을 현대인의 감정으로 들여다보는 시리즈를 만들어내어 대중에게 잔잔하지만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켰다. <감정시대>는 2016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감정을 통해 소개되는데 자칫 낯설게 느껴질 법한 소재이지만,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 모멸감, 공포, 상실감, 그리고 슬픔 등 개인의 감정을 사회학적 시선으로 풀어내 관심을 모았다. 누군가는 작금의 시대를 풍요의 시대라고 외치지만, 정작 날이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고 마음껏 감정을 드러내

기 어려운 시대를 이야기한 <감정시대>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며 현재 사회적 감정의 모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부의 ‘을의 가족-불안의 대물림’에서는 IMF의 외환위기로 실직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사회의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쉽사리 탈출구를 찾지 못하여 불안이 현실을 압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번 무너진 가족의 안위는 복원되지 않고 보장되지도 못한 채 정규직이어도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이 가중되는 지금의 현실과 중첩되는 것이다. 2부의 ‘감정의 주인’은 ‘감정 노동자’라고 불리는 서비스 노동자들이 느끼는 모멸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사회적 감정으로, 감정을 조작화해 이윤을 극대화할수록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훼손되는 현실에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이어 3부에서는 ‘아저씨의 마음’의 타이틀로 ‘아저씨’라고 불리는 중년들이 느끼는 마음을 ‘가장’이 아닌 ‘나’의 감정과 만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로 인한 개인의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게 해 준다. 그리고 4부의 ‘너무 이른 작별’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5부의 ‘스무 살, 남아있는 자의 슬픔’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마지막으로 우리 현 사회상을 면밀히 드러내었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는 만연한 책임 떠넘기기와 모르쇠 태도로 사회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곳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현상과 긴밀하게 연결된 감정을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전가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전반에 퍼진 분위기를 감지한 시청자들은 이것이 “현실 그 자체”라며 호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감정시대>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병폐를 고발하고 경고하며 내밀한 감정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에 대한 압박의 감정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⁸⁾

8) 방연주, 「‘감정시대’가 특별한 이유_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Pd JOURNAL, 2016.12.16)
<http://www.pdj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03> (2017.03.20.검색)

이처럼 우리 사회의 환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과 타협하며 자신의 본질적인 감정을 억누르며 쉽 없이 지내고 있다. 누구에게나 내재된 감정 속에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이 존재한다. 이것은 개인에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내면의 감정이며, 사회와의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잘 드러난다. 유치원이라는 사회적 공간에 들어서기 전, 가족에게만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시기가 그러하다. 그 시기에는 어떠한 외부의 감정을 인지하기 어렵고, 사회적 관계형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지 않아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출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은 성인이 된 어른에게도 내재되어 있다. 다만, 사회라는 공간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부터 이성과의 타협을 통해 잘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사회와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잘 드러나지 않으며,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나 외부적인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는 공간일수록 잘 드러나게 된다. 본인은 자신의 개인적이고도 본질적인 감정을 통해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사회적 현실과의 타협이 아닌 버려지고 무심했던 나 자신의 본질적인 감정에 대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만 들고자 한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 본질적인 진정한 감정적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게 해주고자 하며, 자신에게 소홀했던 지난날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은 외부로부터 받는 사회적 억압의 감정과 개인에게 내재된 근원적인 감정의 모습을 시각화시켜, 각각의 특성을 드러내는 색과 추상적 형상으로 두 감정의 관계를 보여 주고자 한다.

2) 감정과 색채의 심리적 연관성

본인은 복잡한 출근길, 등굣길에 잠도 덜 깬 채 발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마주치는 밝은 햇빛과 싱그러운 나뭇잎의 조화를 보았을 때,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다. 이것은 좋은 날씨로 느껴지는 공기와 함께 맑은 하늘의 색, 노랑색의 햇빛과 초록색의 나뭇잎의 조화로 본인의 감정을 흔들여 놓은 것이다. 또한 여자라면 외출하기 전 화장할 때의 입술 색 그리고 어느 누구나 밥 먹을 때 그릇 위에 담긴 음식들의 색, 옷을 입을 때에 위아래의 색 조화를 보는 등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색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언제 어디서나 분신처럼 따라 다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곁에 있는 것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게 되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거나 슬플 때에 마주하게 되는 색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우울하거나 어두운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밝은 난색 계열의 톤을 보게 되면 인간의 감정은 크게 요동하게 되어 기분의 전환점을 만들어 줌으로써 고통의 감정에서 해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색채감정⁹⁾의 효과라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감정적 부분에 색이 들어오게 되면서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즉, 색이 인간의 내부적인 감정을 위로하는 치유 약으로서 작용하는 셈이다.

9) 색채감정(色彩感情, color feeling): 개개의 색 또는 색채들의 조화가 주는 심리적인 효과. 공통된 경향이 있으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공식화하기는 어렵다. 색에는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적극적 색채와 차분하고 가라앉게 하는 소극적 색채가 있다. 전자는 자주, 빨강, 주황, 노랑, 황록에 걸친 난색(暖色)이며, 후자는 청록, 파랑, 초록에 걸친 한색(寒色)이다. 또한 색에는 경중감(輕重感)이 있어서 담황색과 보라, 황록색과 남보라를 같이 놓으면 각각 앞의 것들이 가볍게 느껴진다. 보통 명도가 높은 색은 명도가 낮은 색보다 가볍고, 또 같은 명도에서는 채도가 높은 색이 채도가 낮은 색보다 가볍게 느껴진다. 채도는 높을수록 화려하게 느껴지고 낮을수록 검소한 느낌을 준다. 이처럼 색채들의 관계에서 오는 차가움과 따뜻함, 무거움과 가벼움, 흥분과 침착, 화려함과 수수함, 진출과 후퇴 등의 느낌들을 색채 감정이라 하며 여기에는 색채가 일으키는 연상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백색은 순결과 신성, 빨강은 열정과 위험, 노랑은 희망, 녹색은 평화와 안전, 검은색은 엄숙함과 죽음 등의 느낌을 주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관념이나 정서를 나타내게 된다.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01.05)

-색채감정(色彩感情, color feeling)

이렇듯 색채감정은 미술학적 부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1940~5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나 화단을 지배했던 색면추상, 색면회화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미술사에서 추상 표현주의의 한 흐름으로, 대형 화면 위에 물감을 넓게 펴 발라 캔버스 전체를 뒤덮는 전면균질회화(all over painting)의 방식이 사용되는 작품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바넷 뉴만(Barnett Newman, 1905.01.29~1970.07.04)과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09.25~1970.02.25)를 들 수 있는데, 형태를 소수의 단순한 모양으로 감축하고 캔버스를 거대하게 확대함으로써 순수한 색채의 표면처럼 시각적이거나 거시적인 특질을 부각시키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명상적이고 정신적인 분위기로 감싸인 고요한 작품을 제작하였다.¹⁰⁾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낸 계기를 뉴만(Barnett Newman)은 “감정의 첫 폭발이나 감정적 소비의 흥분이 아닌, 서서히 차오르는 감정의 충만함이 나의 관심사” 라고 언급하였으며, 로스코(Mark Rothko)는 “나는 색채나 형태, 그 밖의 다른 것들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비극, 황홀경, 운명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나는 그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뿐이다” 고 말하였다.¹¹⁾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전면적인 색을 관객들이 느끼고, 그것을 통해 작가가 표현한 감정과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 본질적인 감정을 울림으로써 억눌린 감정에 대한 해방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정에 관한 것을 최고의 관심사로 두어 관람객들이 작품과 교감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그림들이 개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 작품 스스로 가지는 감정적 개성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것이다.

10)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01.05)
- 색면회화(色面繪畫, Color-Field Painting)

11)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마크 로스코(Mark Rothko)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8393&mobile&cid=40942&categoryId=40513> (2017.12.20.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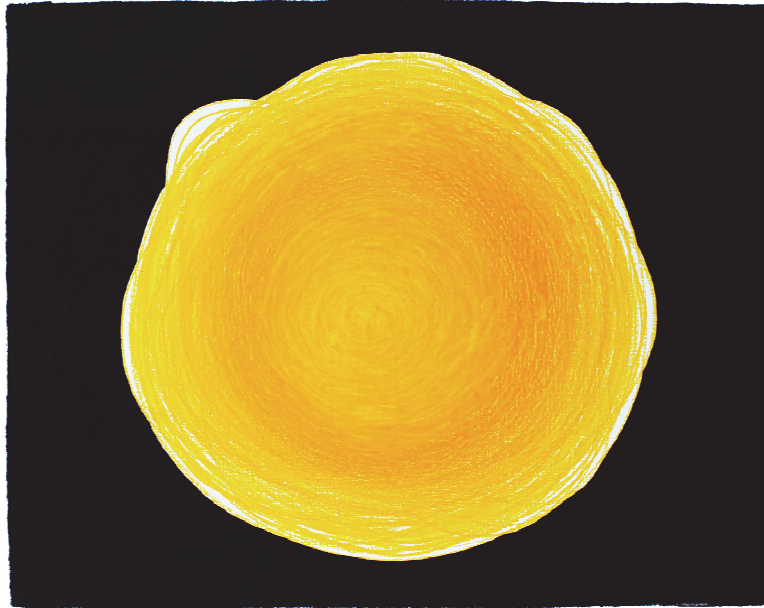
[도판1] 마크 로스코(Mark Rothko), 3번(No.3), oil on canvas, 137.8x172.7cm, 1953



[도판2] 마크 로스코(Mark Rothko), 주황과 노랑(Orange And Yellow), oil on canvas, 180.3x231.1cm, 1956

이처럼 두 예술가의 작품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색으로 시각화하여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게 된다. 그러므로 작품에서의 색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면 위에 나타나는 색감들이 심리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작품들이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로스코(Mark Rothko)의 작품은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도판1]과 [도판2]를 보면 오일 물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색들이 번짐으로서 표현되어진 이러한 효과는 마음속에 일렁이는 감정처럼 보이며 또한 색을 사용함에 있어서 원색으로 보이지만 묘한 색의 혼합을 이루고 있어 관객에게 깊은 감정의 울림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작가에게 내재된 감정을 동시에 읽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된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종의 카타르시스¹²⁾를 체험하게 되는데, 억압된 감정이 정화되고 해소되어 심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도판3] Yellow,
oil pastel on panel, 72.7x90.9cm, 2016

이렇게 심리적, 감정적인 해소의 관점에서 색을 관찰한 결과, 본인의 작품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도판3]**을 보면, 본인은 노

12) 카타르시스(katharsis):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詩學)》 제6장 비극의 정의(定義) 가운데에 나오는 용어. ‘정화’라는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는 한편, 몸 안의 불순물을 배설한다는 의학적 술어로도 쓰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의에 대해서는 이 구절의 표현이 불명료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설(異說)이 분분한 채 오늘에 이르지만, 요컨대 비극이 그리는 주인공의 비참한 운명에 의해서 관중의 마음에 ‘두려움’과 ‘연민’의 감정이 격렬하게 유발되고, 그 과정에서 이들 인간적 정념이 어떠한 형태론가 순화된다고 하는 일종의 정신적 승화작용(昇華作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마음의 상처나 콤플렉스를 말·행위·감정으로써 밖으로 발산시켜 노이로제를 치료하려는 정신요법의 일종으로, 정화법(淨化法)·제반응(除反應)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카타르시스(katharsis)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083&cid=40942&categoryId=31505>
(2017.03.27.검색)

랑색과 검정색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조형적 요소를 최소화시켜 색채가 주는 심리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노랑색은 부신을 자극하여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맥박이 빨라지게 함으로서 사람의 감정에 동요를 일으키게 만든다. 또한 노랑색은 미래의 희망과 환희, 화려, 봄, 꽃, 젊음, 명랑, 청순, 총명함을 연상하게 하고 검정색과의 조화로는 명시도를 높여주어 우리의 눈에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강점을 가진다. 본인은 이와 같은 색채를 사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이가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효과¹³⁾를 보이게 한다. 또한 작품에서 검정색이 노랑색 원형을 감싸고 있는 면적대비¹⁴⁾로 인해 노랑색 원형이 더욱 밝게 보이는 현상은 화면에서의 시각적인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주어 더 큰 감정적 자극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러한 밑바탕에는 본인의 경험과 연구를 기반으로 색을 반영하고 있으며, 색의 의미는 색채학 자료에 의하여 작품화된다. 본인은 색채학을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에서 이야기되는 심상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색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따라서 본인은 작품의 추상적 형상에 포함된 색의 심상으로 자신의 본질적 감정을 충실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또는 감정적 고통의 해소를 본인의 작품세계와 연관 지어 나타내고자 한다.

13) 김진한, 『색채의 원리』, (시공사, 2002.03.25), p.146-147, p.169.

14) 면적대비(面積對比, area contrast): 면적의 크기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 심명섭, 『색채학』, (보성각, 2001.02.25), p.75.

3. 작품 조형 연구

1) 오일 파스텔을 통한 심리적 감정표현

본인의 작품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여 인간의 감정적인 내면을 자극하는 것이다. 본인은 유년기 시절에 즐겨 사용한 원색적 크레파스의 질감을 가진 오일 파스텔이라는 재료를 선택하여 표현함으로써, 본능적인 감정에 충실했던 어린 감정을 그리고자 한다. 그러나 크레파스 대신 오일 파스텔을 선택함에 있어서, 예술이라는 한 분야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고 경험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 본인이 전문가용 미술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지금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도판4]의 크레파스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상징하고, [도판5]에서 제시된 오일 파스텔은 옛 시절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간의 흐름과 본인의 현재 상황적 조건에 비추어 성인이 된 현 모습을 상징한다. 이에 따라 본인은 두 재료의 특성적 의미를 달리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오일 파스텔의 사용으로 인해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들로 하여금 보다 더 익숙하면서도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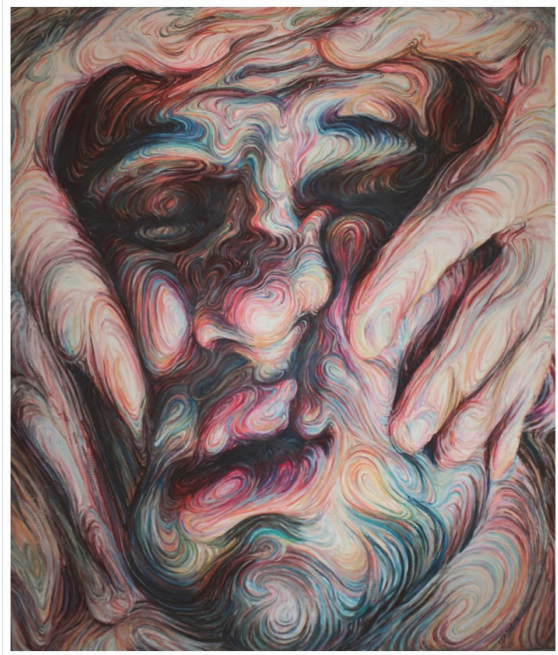
[도판4] 크레파스



[도판5] 오일 파스텔

오일 파스텔은 유성 파스텔(Oil Pastel) 또는 크레파스(Cray-Pas)의 일종으로 단순히 종이에다 그려보면 둘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유성적 재료의 특징이 같아서 종이의 표면에 그려지는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도판4]의 크레파스와 [도판5]의 오일 파스텔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면 채도와 농도 혹은 밀도의 측면에서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 크레파스는 오일 파스텔 보다 좀 더 견고하여 잘 부러지지 않아 유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또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종이를 바탕으로 사용되어지는 재료이기 때문에 표면에 얇게 그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을 밑바탕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천과의 접착력이 약해 계속해서 채색했을 때에 유성적 고체의 안료가 밀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색의 층이 두껍게 올라가지 않아 작품의 밀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반면, 오일 파스텔은 그에 비해 쉽게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종이에 닿는 면적이 넓게 나타나 색칠이 부드럽고 진하게 칠해지며 착색이 잘 되어 혼색과 덧칠에 용이하다. 그리고 두껍게 올라가는 유성적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캔버스 천과의 흡착력이 좋고 색의 지속력이 높아, 본인이 나타내고자하는 표현에는 오일 파스텔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오일 파스텔로 감정적 작품을 이끌어내는 한 예술가를 예로 들어 본인의 작품과 비교 분석하고, 더불어 본인의 작품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오일 파스텔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의 표현이 시각화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여 마치 소용돌이치는 듯한 표현방식을 보인 니코스 가이팍티스(Nikos Gyfaktis, 1981~)의 작품은 주로 자화상이나 인물을 소재로 그리고 있다. [도판6]과 같이 작품의 인물들은 인간의 고통, 고뇌와 번민의 감정을 그린 것으로 화면에서 아주 심오한 철학적 세계를 보여준다.¹⁵⁾ 이러한 감정 상태를 오일 파스텔로 그려냄으로써 재료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표현이 작품의 주제와 특성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작품에서 감정 요소의 특성과 유사한 무른 재료의 오일 파스텔을 선정하여 자연스럽게 색이 섞이는 느낌을 줌으로써 화면에 나타나는 얼굴의 표현이 심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감정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도판6] 니코스 가이팍티스(Nikos Gyftakis), 자화상 V(Self portrait V), oil pastel on canvas, 190x150cm, 2004~2005

마찬가지로 본인도 인간의 감정을 소재로 한 작품에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여 형상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유사함을 보이지만, 니코스 가이팍티스(Nikos Gyfaktis)의 고통적인 내면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표현방법에 있어서 본인과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표현의 다양성을 최소화시키고 절제하여, 인간 내면의 감정을 반복적 원의 형상으로 그려내어 마치 감정적 소용돌이와 같은 형태

15) 백포화랑, 「오일 파스텔과 소용돌이 기법 (Nikos Gyfaktis)」, (장제인의 그림이야기)
<http://blog.daum.net/cmkipia/7660821> (2017.04.01.검색)

로 단순화하여 나타낸다. 본인은 이러한 추상적 원의 형상으로 내면의 본질적 감정을 그리고, 그를 둘러싸는 사회적 감정은 사회의 외부적 압력이 느껴지게 검정색으로 채색하여 표현한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두 감정적 모습을 각각 다른 기법과 색으로 보여줌으로서 사람들의 본질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표상하고 있다. 즉, 본인은 본인의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감정의 울림, 동요를 느낌으로서 자신의 본질적인 내면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인은 구상적인 사람의 얼굴표정을 중점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도판6]의 작품과 달리, 단순한 조형적인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인간의 감정을 추상적 이미지로 그려낸다.

기존의 추상회화에서는 튜브물감을 큰 붓에 묻혀 화면 전반에 걸쳐 칠하는 방식으로, 주로 평면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어떠한 도구도 거치지 않고 도구이자 주재료인 물감덩어리 그 자체를 사용한다. 오일 파스텔을 손으로 직접 들고 평면에 옮겨냄으로써 간접적인 표현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표현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한다. 이 표현방법은 원기둥의 입체를 가진 전형적 형상의 오일 파스텔이 평면화되어 또 다른 비전형적 형상을 만드는데, 이러한 건성재료의 반복적 행위로 만들어지는 형상은 입체적 재료의 도구에 물질성과 시간성의 변화를 가짐으로 화면에는 변형된 모습을 담아낸다. 물질의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형태가 변화됨으로서, 작품에서의 반복적 행위를 따라 시간성이 포함되어져 나타나는 이 형상에 본인은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 혹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오일 파스텔을 통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서 ‘나’ 라는 존재의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외적인 면이 변화함으로서, 반복적으로 그려진 원형에 시간의 흐름이 녹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오일 파스텔이 줄어듦에 따라 옮겨지는 형태의 변화는 화면을 통해 엿볼 수 있지만, 오일 파스텔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에

도달했을 때 남겨진 밑 부분의 자투리는 포기하거나 버려지는 감정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안을 수 없는 현실적 모습을 의미한다. 즉, 본인의 작품은 오일 파스텔이 변화함에 따라 감정이 포함되어 화면에 그려지는 모습으로, 심오한 예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방식에 대한 의미를 바탕으로, 본인은 작품에서 드러나는 추상적 형태를 통해 개인이 느끼는 본질적 감정과 사회적 감정의 색채와 형상표현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2) 추상적 형태를 통한 색채와 감정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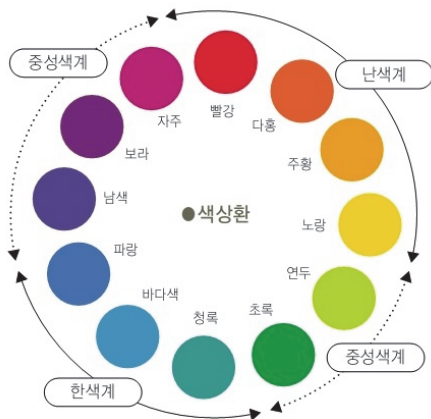
색면추상회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색이라 할 수 있다. 추상회화에서는 어떠한 색도 주관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본인 작품도 색의 상징에 관해서는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의 색으로 색채학에 의거하여 의미를 부여한다. 먼저 본인 작품을 색의 측면에서 보면 유채색과 무채색¹⁶⁾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작품에서 유채색은 개인의 본질적인 감정을 상징하며, 무채색은 개인이 사회로부터 받는 압박, 억압의 감정을 의미한다. 난색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감정적 원형들은 각각의 색으로 깊은 본질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본질적 감정을 감싸고 있는 외부의 사회적 감정과 맞닿을수록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은 약하게 그려진다. 본질적 감정을 둘러싼 사회적 감정은 무채색을 바탕으로 감정 간의 관계에서 억압된 느낌을 주기 위해 검정색을 사용한다. 모든 색을 포괄할 수 있는 검정색을 선택하여 사회가 가진 힘의 범주를 보여주어 개인의 감정을 잠식시킬 수 있는

16) 유채색, 무채색(有彩色, 無彩色): 적색, 녹색, 청색과 같이 채색이 있는 것을 유채색이라 하며, 흑색, 회색, 백색과 같이 채색이 없는 것을 무채색이라 한다.

최상복, 『산업안전대사전』, (도서출판 골드, 2004.05.10)

-유채색, 무채색(有彩色, 無彩色)

색의 구조로 만듦으로써, 개인의 본질적 감정과 사회적 감정의 영향력을 색의 서열관계로 나타낸다. 다시 말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감정의 색은 사회가 가진 색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난색의 본질적 감정을 검정색의 사회적 감정이 잠식 시킬 수 있는 구조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도판7] 색상환표

본인의 작품에서는 원색으로서 색이 제한된 구조를 엮을 수 있는데, 유채색의 난색계열 위주에 검정색 바탕이 그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난색의 빨강, 주황, 노랑, 분홍색이 주를 이루며, 난색과 검정색을 배색하여 채색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가독성이 빨라 순간적인 감정적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색의 인식은 작

품에서의 색 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도판7]의 색상환¹⁷⁾표를 보면 한 눈에 색의 관계를 알아 볼 수 있다. 난색계열의 반대편에는 한색계열이 분포되어 있는데 검정색과 초록, 파랑, 보라색의 대비보다는 빨강, 주황, 노랑색과의 색상 대비효과가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보색 대비보다 색의 대비 효과가 훨씬 높은 색을 염두 해 선택하다 보니 난색과 검정색에 색의 제한을 가져왔고, 그 결과 작품의 명시성과 주목성이 높아지게 되어 감정과 색의 관계에 있어서 시인성이나 판독성이 한층 더 부각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고명도, 고채도의 난색 계통이 자극적이고

17) 색상환(色相環, hue circle): 색의 변화를 계통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색표를 등근 모양으로 배열한 것. 상대하는 위치에 보색이 서로 마주 보이는 것을 특히 보색 색상환이라고 한다. 색 환에서 사용되는 색표는 색상을 기준으로 하여 배열하므로 색상환이라고 불리 운다.

『색채용어사전』, (도서출판 예림, 2007.08.23)
-색상환(色相環, hue circle)

적극적인 색의 심리작용을 가지기 때문인데, 배색관계에 있어서 주목성이 강한 난색은 배경색과의 심한 명도차로 즉각적인 감정적 효과¹⁸⁾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난색 계열의 색 배치를 통해 개인의 본질적 감정과 사회로부터의 감정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대비되는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두 감정적 구조 간의 상관관계를 잘 드러나게 해준다. 본인은 심리적 해소를 기본적 조형요소인 색을 통해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작품을 바라보는 이에게 색으로 먼저 편안하고 쉽게 다가가게 만듦으로서 감성적 효과를 더욱 상승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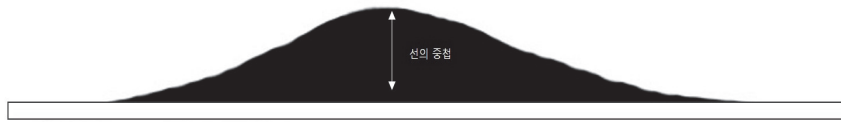
본인은 감정이라는 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형용할 수 없는 추상적 형태로 시각화한다. 본인은 가장 기본적인 조형요소의 점을 기점으로 작품화하여 본질적, 본능적, 원초적, 근본적인 단어들을 내포하는 의미로 풀어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인은 작품에서의 이미지가 근원적인 형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원의 형태에 가깝게 그린다. 원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으로, 본인은 작품에서 본질적 감정을 선적인 요소로 그려내어 도출해낸 원의 형상을 통해 감정적 울림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표현하여 구성한다.

원의 형상을 철학적 의미로 살펴보면, 동양에서는 우주와 신, 하늘을 뜻하며, 불교 윤회의 개념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순환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무한, 완벽, 영원, 신의 상징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처럼 원은 ‘끝없는’이라는 형용된 공통적 개념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 운동성, 완전성, 초월, 무(無), 공(空), 성지, 영생의 땅, 성스러운 궁전, 내전, 복자들의 땅, 선택된 자들이 사는 곳 등을 내포하기도 한다.

18) 심명섭, 『색채학』, (보성각, 2001.02.25), p.112.

덧붙여 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무한한 모습으로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하늘, 우주, 신의 형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상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의 형상은 시간과 공간, 사물의 내부와 외부로 나선형으로 넘나드는 삶의 흐름을 연상케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속에서 자아의 중심세계와 타인의 세계와의 조화, 통일이라는 확장된 관념으로도 읽을 수 있다. 또한 자연계의 생물, 동물에서도 대부분 곡선의 형태로 씨앗, 난자, 세포, 원자와 같은 것들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 태양, 별 등에서도 원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몸 자체도 난자로부터 생성되어 세포가 점차 분열되고 만들어져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본인은 원의 감정적 형상도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형태라 빗대어 말하고자 한다.

이처럼 원의 형태 속에 수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중 본인은 삶의 흐름에서 겪게 되는, 끝없이 이어지는 감정 선들을 의미로 끌어와 감정적 원의 형상을 만든다. 따라서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후생에서도 경험하는 감정들을 원의 조형요소를 통해 작품에 도출해낸다. 이 원형의 감정 선들은 추상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무한한 감정 상태를 반복적 원으로 그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끝없는 감정의 시간성을 보여준다. 앞에서 제시한 [도판3]을 보면,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본질적 감정의 형상이 원의 중심부로부터 정원에 가까운 선들을 두껍게 겹쳐 올리면서 반복적으로 그린 자국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의 외곽으로 퍼져나갈수록 선들의 중첩이 적어지며 다양한 형태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원의 중심에 중첩된 선으로 가중시켜 표현함으로써 깊게 박혀있는 본질적 감정을 그린 것이다. 반면, 원형의 외곽부분은 사회와 근접하게 됨으로서 본질적인 감정이 약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도판8] 반복적 선의 중첩으로 인한 원형 단면도

원의 형태를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도판8]의 단면도와 같이 원의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두꺼운 선의 두께가 만들어진다. 선의 중첩으로 인해 원형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이 두께감은 외부의 사회적 환경과는 다른 감정적 표현으로, [도판8]에 제시된 형상처럼 입체감이 느껴지는 개인의 본질적인 감정 표현은, [도판3]에 검정색의 평면적인 사회적 감정과 대조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반복적인 원의 드로잉 선을 통해 일렁이는 감정을 형상화시킨 본질적 감정형상은 유기적, 유동적이며 유연하고 자유롭게 느껴지지만, 사회적 감정은 보다 정적이고 차가우며 딱딱하고 냉정한 느낌으로 표현되어져 두 감정적 모습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인의 작품은 이 둘의 감정적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로서, 본인은 각각의 특징적인 모습을 잘 드러나게 나타내고자 하여 단순화된 추상적인 화면을 그린다.

쿠사마 야요이(くさまやよい, Kusama Yayoi, 1929.03.22~)의 작품에서 점, 원, 물방울무늬, 그물망이 가지고 있는 형상은 자신의 강박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녀의 정신질환적인 원은 인본주의 시대에 정신과 자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으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원의 형태는 모난 부분이 없고, 시작과 끝도 없는 생명의 궁극인 정체성, 완

성, 순환, 안식, 원, 통합 등의 상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점, 원, 물방울무늬로 뒤덮인 쿠사마의 작품은 창조와 소멸,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창조의 무한한 순환, 원으로의 회귀를 계속하는 우주의 법칙을 담아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¹⁹⁾ 쿠사마 야요이(くさまやよい, Kusama Yayoi)는 본인의 작품과 다르게 자신의 개인적인 정신적 문제를 소재로 삼아 원의 형태를 작품에 담았지만, 정신, 마음, 감정이라는 비시각적 요소를 시각화한 것에서는 본인과 유사한 맥락으로 작품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판9] 쿠사마 야요이(くさまやよい, Kusama Yayoi), 호박들(Pumpkins),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urethane paint and metal, 가변크기, 2013

19) 이문정, 「야요이 쿠사마(Yayoi Kusama)의 강박신경증적 예술에 나타난 자기 치유」, (한국조형교육학회, 학술저널, 造形教育 第46輯, 2013), p.255-282.



[도판10] 쿠사마 야요이(くさまやよい, Kusama Yayoi), 튤립에 대한 나의 모든 사랑이 담겨있어, 나는 영원히 기도 한다(With all my love for the tulips, I pray forever),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urethane paint and stickers, 가변크기, 2013

쿠사마 야요이(くさまやよい, Kusama Yayoi)의 작품 [도판9], [도판10]과 같이 반복적인 원형은 일정한 크기의 원을 규칙적으로 오려 붙이거나, 찍거나 그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강박적 정신 상태와 닮아 있으며, 온전한 원의 크기와 형태로 인해 작품에서 말하고자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본인은 일정하지 않은 크기에 원의 형태를 그리는데, 이것은 말로써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 혹은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인의 작품에서는 반복적인 원을 그려내어 원심으로 갈수록 밀도를 높인 방식의 형상을 만들어 냈으므로써, 내면의 깊은 본질적 마음상태를 표현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06.27~1962.10.16)는 ‘우리의 존재를 존중하고 집중하며 확립하는 데에 원형의 형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상' 인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덧붙여서 이는 '쿠사마의 약점을 보완하기에 충분한 형태인 것' 이라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원의 형태를 통해 쿠사마 야요이는 자신의 정신질환을 표출함으로써 독보적인 존재로 작품을 확립하여 자기 자신을 치유한 것이라면, 본인은 인간에게 내재된 감정을 시각화한 이미지로 도출해 내어 작품을 감상하는 이에게 감정적 해소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덧붙여서 쿠사마는 자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장시켜 나아갔으며, 현대사회의 문명화, 물질화된 현상이 개인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데에 영향력을 크게 작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쿠사마는 사회적인 억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치유와 치료가 되기를 원한다. 반면 본인은 쿠사마의 의도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추상적 형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에게는 무아의 경지 또는 사색과 명상을 가져다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관객들에게는 일상에서의 정신적,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이탈 또는 해소, 해방감으로 환기(喚起)되길 바라는 점에서 그녀와 다른 시각적 의의를 갖고 있다.

오늘날 사회의 대부분은 어떠한 공간 속에서 지내는데, '네모의 꿈' 처럼 사각형 속의 사각형이 그 배경이 된다. 각이 맞춰져 있는 답답한 사회적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각의 구조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는 잘 맞춰지고 짜여져 있는, 딱딱하고 조직화된 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것은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판넬의 소재에서 딱딱하고 막혀 있는 답답한 특성과 형태로 그러한 바탕을 대변하고 있으며, 또한 어둡고 막막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배경에 감정적인 색채로 검정색을 선정해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이미지를 표상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감정부분은 본질적 원형을 그릴 때의 제스처와는 다르게 규칙적이지 않은 다양한 선들의 구조로,

원형을 둘러싼 그 밖의 여백에 검정색 오일 파스텔로 채색된다. 채색하면서 맞닿게 되는 틀에서는 2cm 정도의 간격을 띄우고 사회적 감정의 배경을 그린다. 이 간격은 사회적 감정도 하나의 틀 안에서 존재하는 모습으로, 사회적 감정의 모습도 주어진 틀 안에서 조금이라도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의 특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감정도 또한 고정된 모습이 아닌 동적인 형상으로 표현하여, 사회도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필요악²⁰⁾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모습을 그린다. 또한 사회적 배경의 화면에는 평면적으로 그려내어 본질적 감정과의 대비가 되도록 한다. 이것은 작품에서 개인의 본질적인 감정이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의도로, ‘나’ 자신으로부터 바라보는 사회를 그리는 방식을 도모하여 색과 형태, 그리고 표현에 따라 감정적 차이를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개인의 본질적 감정과 사회적 감정이 각각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 공존하는 관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율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경험하고, 생활하며 마주하는 개인과 사회의 감정적 관계는 떼어낼 수 없는 영원불변의 법칙인 듯하다. 추후에 본인은 점차적으로 사회의 감정적 공간에 열린 화면을 구성한다. 이러한 화면구성에 중간 중간 빈 여백은 개인의 본질적 감정이 새롭게 생성될 여지를 남긴 것으로서, 이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과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좀 더 유동적이고 유기적인 면모를 보여주고자 한 공간임을 의미한다.

오일 파스텔은 오일 물감과 달리 고체 안료의 덩어리 자체를 사용하는 재료로서, 열이 나면 쉽게 무르고 손에 잘 묻는 특징이 있지만 추상적인 선과 면을 표현하는 본인에겐 적합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재료의 난색과 검정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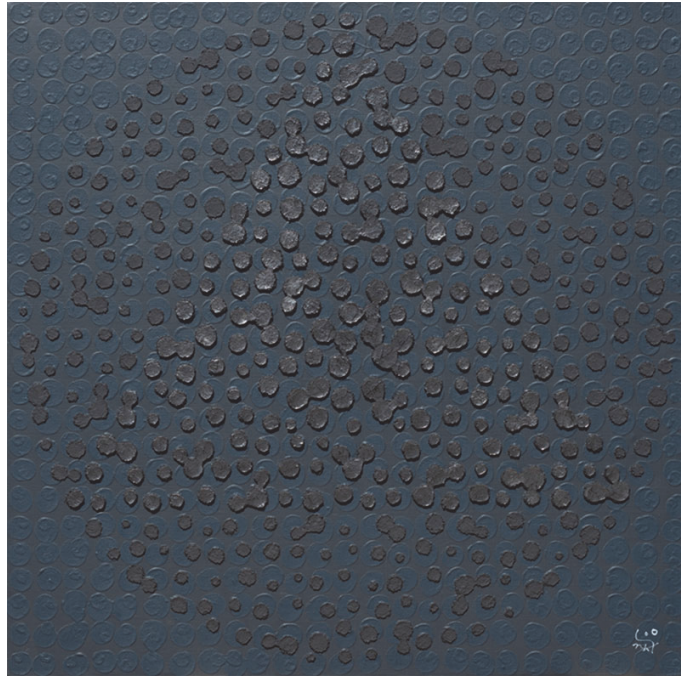
20) 필요악(必要惡, necessary evil): 국가 또는 권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악(evil)으로 볼 수 있지만 질서의 유지와 통일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근대자유주의 사상의 국가관(國家觀) 또는 권력관(權力觀)을 말한다.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01.15)
 -필요악 (必要惡, necessary evil)

오일 파스텔이 주로 사용되는 본인의 작품은, 기본적인 조형요소를 통해 구성되어지는 추상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회화작업이다. 본인은 이러한 추상적 형상의 표현에 사회적 감정과 개인의 본질적 감정 간의 감정적 관계를 담아낸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원을 그려가며 감정적 형상을 만드는 본인은, 원에서 시작하여 원으로의 끝나지 않는 순환 또는 끝없는 감정에 의미를 둠으로서, 이러한 추상적 형상에 삶을 통한 인간의 감정적 모습을 녹인다. 그러나 본질적 감정과 맞닿는 사회적 배경의 부분에는 그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오일 물감으로 표현한다. 이에 따라 본인의 중후반 작품에서는 오일 파스텔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감정의 지점을 오일 물감과 붓으로 날카롭고 힘 있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서, 본질적 감정과 비교된 모습을 나타낸다. 오일 물감은 붓을 이용하여 화면에 표현하는 방식으로 구상, 추상 할 것 없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이 재료는 본인 작품의 화면 안에서 개인의 본질적 감정과 다른 칼같이 날카롭고 매몰찬 성격을 가진 사회적 감정의 표현을 위해 사용된다. 초반의 몇 작품에서는 사회적 감정의 표현에 오일 파스텔의 무딘 특성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럿 시행착오를 거쳐 작품의 중반부터는 오일 물감으로 대체한 것이다. 결국 오일 파스텔 재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일 물감을 붓을 통해 사용하게 됨으로써, 본인은 개인의 본질적 감정과 사회적 감정을 비교적 다른 느낌으로 분리시켜 두 감정의 성격차이를 구분 짓고자 한다. 덧붙여서 사회는 개인처럼 혼자만의 감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와 협력하고 도와가며 만들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회적 감정에 붓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붓이 그 중간적 역할을 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물론 매직이나 기타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여 더 매끈하고 요철 없이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감정에 붓의 큰 동세(動勢)로 회화적인 느낌을 줌으로서 본질적 감정보다 힘 있고 강력한 위력의 형상으로 보여주고자 함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적 특성의 감정부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외부로부터 받는 사회적 감정의 압박이 우리의 본질적 감정을 더욱 갈망하게 만든다. 또한 최근 작품에는 사회적 감정부분의 배경에 소묘적인 느낌을 더하여 표현함으로서, 본질적 감정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형태와의 관계에 소통을 열어주고 화면 구성 자체에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재미와 상상을 가져다주고자 한다. 끝으로, 본인의 작품은 과정이 드러난 형태로 그려냄으로서, 화면에 진행되어지는 현상과 우리가 현재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3) 반복적 행위를 통한 사색과 명상

작품에서 반복적 행위를 통한 원형은 오일 파스텔의 고체 덩어리들이 쌓여 화면에 표현되어 진다. 이 원의 형상은, 감정 덩어리의 오일 파스텔이 화면으로 이동되어지면서 본인의 감정도 함께 이입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느낌을 가져온다. 오일 파스텔로 빠르게 그려지는 속도감과 색채는 본인의 잠정적, 본질적인 감정이 드러나게 되며 또한 본인에게 내재된 깊은 감정의 표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감정의 표상은 무한 순환, 삶의 연속, 반복되는 일상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원의 반복적 행위로 인해 그 의미와 개념을 더한다. 그것은 본인이 외부적인 속세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무아지경의 상태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복적 행위로 인한 해탈의 경지에 이른 상태는 본인에게 사색을 가져오며 고뇌로부터 해방되어 명상의 시간을 갖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원을 그리는 반복적 행위가 곧 외부적 환경에서 벗어나 본질적이고 순수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게 하여 사유의 단계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판11] 권순익(權純益),
무아-그림자(Absence of Ego-Shadow),
혼합재료, 60x60cm, 2012

권순익(權純益, 1959~) 작가의 최근 작업 ‘무아(無我)’ 시리즈 중 하나인 [도판11]의 작품은 끊임없는 자아성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배경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을 통해 말 그대로 ‘자신을 비워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표현과 색감을 절제한 단순한 추상적 형상의 모노크롬 회화로서 더욱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려는 시도를 한다.

“분청사기를 만들어 낼 때, 저는 도자기의 표면에 반복적으로 도장을 찍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도장을 찍으면 잡념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작업에 몰입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렇게 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자신을 잊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즉, 자기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품을 통해 말하는 ‘무아’ 라는 것은 반복을 통한 몰입 과정에서 새로운 나를 보는 것을 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근원적인 저에 대한 성찰을 ‘무아’ 라는 주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²¹⁾

권순익 작가의 ‘무아’ 시리즈는 [도판11]의 작품과 같이 반복적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형상이다. 작품에서의 반복적 행위 자체는 작가 본인 스스로에게 분명 몰입의 정신을 가져다주지만 관람객에게는 또 다른 몰입의 느낌을 받아들임으로서 작품을 감상하게 만든다. 원이라는 조형적 요소로 마음을 그리는 권순익 작가는 캔버스 위에 스케치를 한 다음, 그 크기에 맞게 물감이나 다른 재료를 섞어 올리고 말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오브제들을 튀어나와 보이게 제작한다. 이러한 원, 점들의 오브제를 굵기도 하며 그 위에 또 그리고 덧입히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 속으로, 자신 스스로의 존재를 잊는 수양을 한다고 말한다. 또한 작품에서 그려지는 점, 원의 형상은 형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모호한 것들의 소재를 작품에 사용하는데, 이 모호한 것들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마음’은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형체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을 지니는 개념이나 언어들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지개는 그것이 실제 있는 듯 하지만 실상 구체적인 형상은 없듯이 신기루도 이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물비늘 역시 물 위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빛에 의한 현상일 뿐인 것처럼 작품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²²⁾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작품

21) Art MK, 「[국내아티스트] 권순익, 반복을 통한 무아(無我)의 세계(1)」, (Art MK, 2014.06.17)

<http://www.artmk.kr/artmk/archives/4044> (2017.03.30.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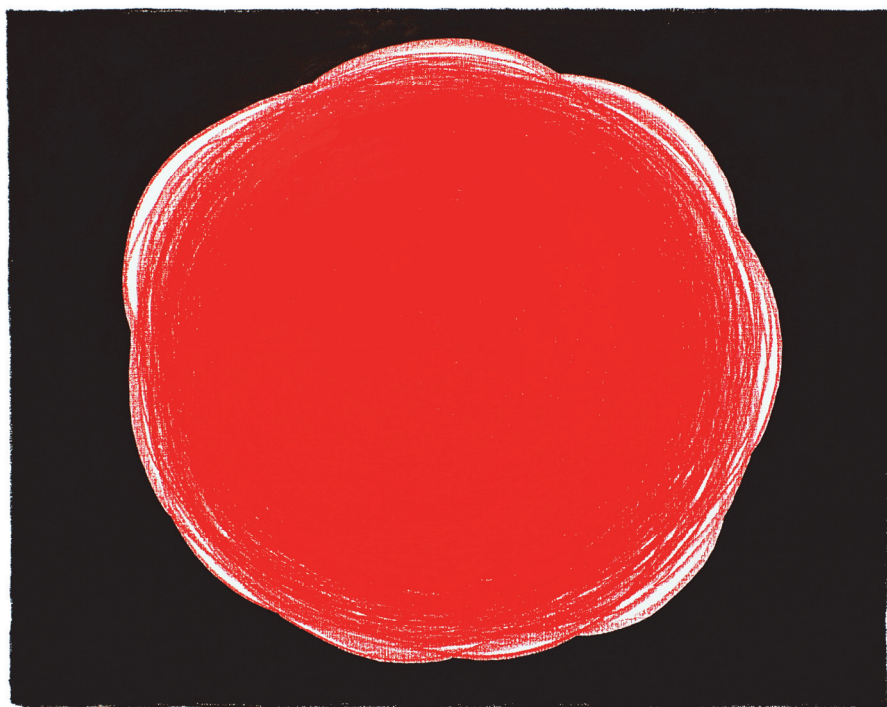
22) Art MK, 「[국내아티스트] 권순익, 반복을 통한 무아(無我)의 세계(2)」, (Art MK, 2014.06.23)

<http://www.artmk.kr/artmk/archives/4161> (2017.03.30.검색)

에서도 정서, 감정, 마음을 소재로 반복적인 작업을 이행하면서 자신과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으며, 화면의 감정적 형상을 통해 관람객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비가시적인 소재를 주제로 단순한 과정과 형태 속에서 추상성을 탐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권순익 작가의 작품은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비슷한 맥락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조형요소를 활용해 표상할 수 없는 객체를 상징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은, 본인의 감정과 정서, 마음의 사상을 담아낸 작품으로 승화된다.

즉, 본인은 오일 파스텔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원의 선들을 통해 감정을 시각화하는 작품을 연구한다. 중첩된 선들의 집약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형상은 기계적인 행위가 아닌 본인의 감정과 기운, 호흡, 마음, 정신을 동반하여 그려지는 것으로서, 작가의 심리적, 정신적 사유와 함께 우리 현실의 감정적 표상을 만들어낸다. 작품 분석의 본 작품들은 개인의 본질적 감정과 사회적 감정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이며, 이를 표현하는 상징적 재료와 반복적 행위를 통해 형상화된다. 본인은 원색의 추상적 형태를 가지고 화면에 형상화 되어진 본 작품으로, 그에 관한 각각의 감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4. 작품 분석



[작품1] Red, oil pastel on panel, 72.7x90.9cm, 2016

본 작품은 ‘Circles’ 시리즈의 첫 번째 작업이다.

본인은 [작품1] 작품제작을 위해 30F 크기의 나무 판넬과 단색의 오일 파스텔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다. 먼저 본인은 나무 판넬 표면을 캔버스 천으로 씌우고 캔버스 천 바탕 면에 젯소를 얇은 농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짙은 농도까지 15번 정도 칠한다. 본인은 작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다수의 젯소 층을 캔버스 천 바탕 면에 쌓아올리고 최종적으로 묽은 젯소를 덧칠하여 고른 표면을 만든다. 본인은 여러 젯소 층의 축적과 사포를 통한 고른 표면을 만듦으로서, 캔버스 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요철을 보다 더 최소화시켜 작품 제작의 주재료인 오일 파스텔을 보다 효과적으로 화면에 밀착시키고 물성을 극대화하고자 시행한다.

바탕 면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본인은 화면 정 중앙을 원의 형상표현에 출발점 및 기본 축으로 설정하고 빨강색 오일 파스텔로 원을 반복적으로 그린다. 본인은 구체적인 스케치 없이 화면의 정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컴퍼스나 자를 활용하지 않고 손가락과 손목만으로 원을 그리며 표현한다. 원의 크기는 매 순간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화면의 정중앙을 중심축으로 원을 형상화시킬 때에는 일정한 지름을 가진 정원을 그리고자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그 행위를 반복한다. 그리고 화면의 중앙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일정한 지름을 가진 정원의 형태보다는 불규칙적인 타원으로 나타낸다.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수많은 원들은 화면 위에 새롭게 생성되고 서로 중첩되며 점차 바탕화면을 채워나간다. 원을 그리는 과정에서 휴식 등을 이유로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리는 행위를 멈추거나 또는 의도적이지 않게 원을 그리는 과정에서 오일 파스텔이 부러지거나 오일 파스텔이 닳은 경우, 마지막 선을 그은 지점에서 다시 출발점으로 하여 원을 이어서 그리고 또다시 반복하여 형상표현의 과정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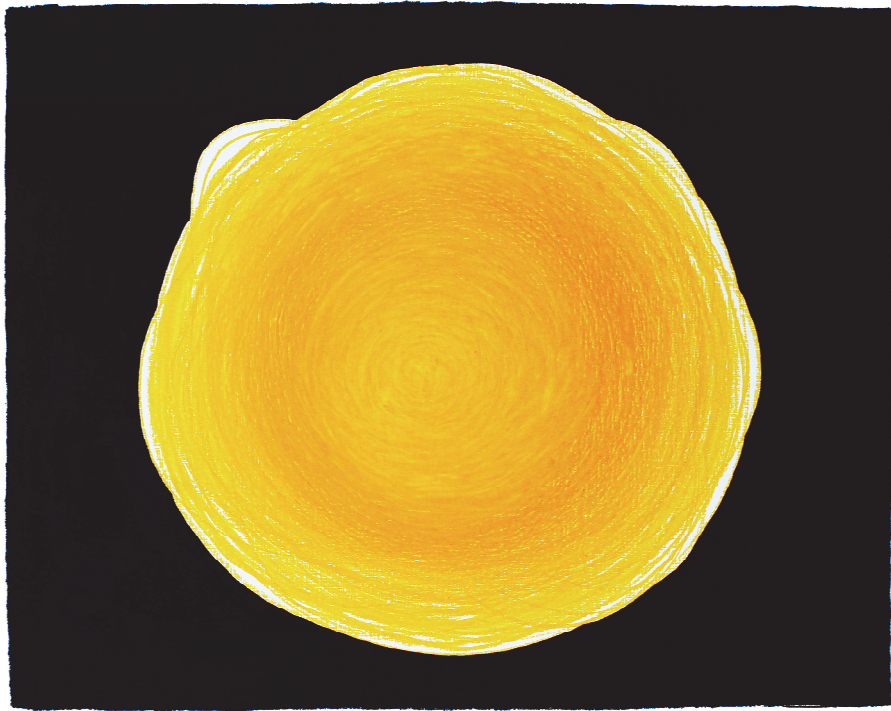
한다. 화면의 중심으로부터 시작한 반복적 원의 형상표현은 화면의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선의 중첩은 점차 줄어든다. 화면 중앙의 공간은 화면 바깥쪽 공간에 비해 보다 손가락과 손목의 더 강한 압력을 받으며 수많은 원들의 반복 과정을 통해 가득 채워진다. 그리고 이 각각의 원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중첩됨으로써 선이라는 요소에서 점점 색면으로 변해간다. 반복된 오일 파스텔 선들이 지속적으로 화면 위에 축적되고 바탕 면을 채우고, 나아가 더 이상 바탕 면이 아닌 오일 파스텔로 뒤덮인 색면 위에서 서로 중첩될 때, 오일 파스텔의 물질감이 가중되어 물성을 강조시킨다. 따라서 붉은 원의 중앙 공간은 원을 구성하는 다른 어떠한 공간보다도 더 진하고 무거우며 입체적인 것이다.

붉은 원의 외곽 쪽 공간은 그에 비해 덜 진하고 가벼우며 평면적이라 할 수 있다. 선들이 중앙에 비해 덜 겹쳐져 있어 그로 인한 바탕 면이 보임으로 육안으로 쉽게 원의 형성과정을 인지할 수 있다. 외곽 원들의 형태와 성격은 타원이며 다양한 방향성을 지닌다. 그 원들은 보다 감정적 형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는 화면 중앙에서 시작된 정형의 원에 비해 비정형화된 반복적 행위로 표현된다. 하나의 원이라는 큰 구조 안에서 변해가는 또는 충돌하는 모습으로서, 서로 다른 성격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중앙에서 시작된 규칙적인 원의 반복적 구조에 대한 거부와 수용으로 나타난 충돌들이 감정적 형상의 성격을 담아내어 다양한 타원의 형태와 선들로 결합된 것이다. 그리고 원의 형상을 그리는 순간에, 본인은 직관에 의한 형태가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원의 형상은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짙은 감정적 현상으로 무의식 중 생겨나는 우리의 본질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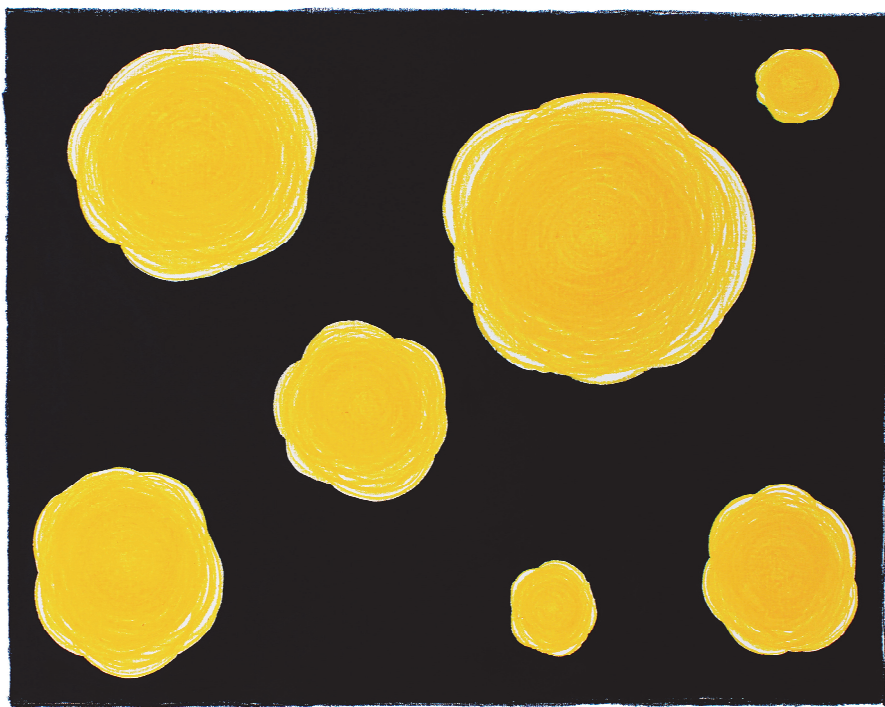
검정색 오일 파스텔을 이용하여 빨강색 원의 형태 외곽을 빨강색 선과 닿을 듯 말 듯 하게 선을 그은 다음, 그 선 밖으로 흰 바탕의 빈틈이 보이지 않게

접쳐 칠한다. 이때, 손가락과 손목에 힘을 주어 칠하게 되는데, 빨강색의 감정적 형태처럼 한 포지션에 맞춘 형태로 채색하는 것과 다르게 다양한 선들로 배경을 진하게 채색됨으로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본인은 우리가 느끼는 답답한 사회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오일 파스텔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어두움을 최대치로 이끌어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적 감정의 바탕을 진하게 칠해가다 보면 사각형인 흰 화면의 경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본인은 흰 배경과 2cm정도 간격을 두고 사각의 테두리를 검정색 오일 파스텔로 그은 다음 칠하는 과정을 그린다. 본 작품에서는 사회적 감정과 배경과의 간격을 가짐으로서, 사회적 감정 또한 큰 틀에 의한 모습으로 확장이 가능한 면모를 내재한다. 마지막으로, 작품이 충분히 건조되면, 오일 파스텔의 가루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 전용 스프레이 바니시를 사용하여 고루 분사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본인이 스프레이 바니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붓을 이용하는 바니시를 사용하게 되면 오일 파스텔의 가루가 붓에 붙어 다른 색에 침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일 파스텔의 색이 번지게 되는 염려가 있으므로 발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은 모든 작품의 완성 단계에 최종적으로 바니시 작업을 실행한다.

본인은 본질적 감정과 사회적 감정을 눈으로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빨강색과 검정색 두 가지의 원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빨강색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기본적 성향인 열정, 본능적 감정의 느낌을 이끌어내고자 하였고, 검정색은 사회적 성향을 바탕으로 무겁고, 힘들고, 권위적인 모습과 상황을 연결시켜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검정색은 색의 배색 대비에 가장 효과적인 모습으로 드러내어 사회적 현실을 대변하는 색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본인은 원색 위주의 오일 파스텔을 통해 현대인이 느끼는 사회와 자신에게 내재된 본질적 감정의 열정을 바탕으로 본 작품에 담고 있다.



[작품2] Yellow, oil pastel on panel, 72.7x90.9cm, 2016



[작품3] Yellows, oil pastel on panel, 72.7x90.9cm,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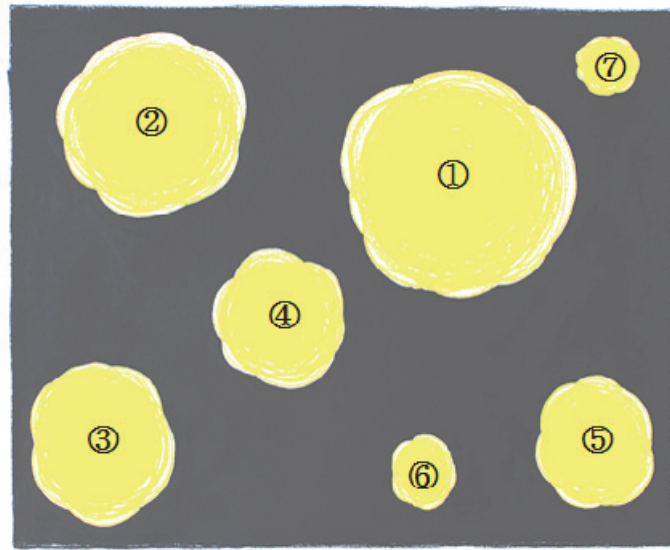
[작품2], [작품3]의 두 작품은 [작품1]과 달리 노랑색 원의 형태로, 같은 상징체가 작품의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을 이룬다. 본인은 노랑색과 검정색을 통하여 본질적 감정과 사회적 감정을 표현한다. 노랑색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색채학 연구의 자료를 근거하여 심리적 이론상 사람들에게 내재된 자신감과 낙천적인 느낌을 이끌어내고, 배경이 되는 검정색의 사회적 모습과 대비²³⁾를 잘 보여주고자 함이다. 또한 이 두 색의 조합은 명시성이 강하여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줄 수 있어 감정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효과를 가진다.

두 작품에서 보여 지는 원의 형상은 같은 본질적 감정형상으로 그린 것이다. 하지만 [작품2]는 [작품3]에 비해 큰 원의 형상으로 뜨거운 감정적 덩어리로 표현되고 있고, [작품3]에서는 [작품2]의 감정적 형상이 쪼개지고 나누어진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둘의 힘의 관계에 있어서 [작품2]는 하나의 본질이 존재하는 거대한 감정부분의 영향력을 상징하고, [작품3]은 [작품2]의 감정이 어떠한 현실의 상황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분열이나 분산되어 사회적 감정에 수용 또는 압도당하는 듯한 형상으로 퇴색되는 인간의 감정을 그린 것이다. 본 작품들에서는 이러한 감정의 현상들을 나타내고자 한다.

[작품2]에서는 [작품1]과 동일한 방법으로 30F 판넬 위에 젯소 층의 바탕면 밑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이번에는 노랑색 오일 파스텔을 이용하여 화면의 정중앙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원의 형상을 그려나가는 점에서 [작품1]과 색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작품1]과 같이 구체적인 스케치 없이 화면의 정중앙을 중심축으로 하여 일정한 지름의 원을 반복적으로 그린다. 그리고 화면의 중앙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불규칙적인 타원을 그리며 수많은 원의 선

23)박연선, 『색채용어사전』, (도서출판 예림, 2007.08.23)
-노랑(黃, Yellow)

들로 화면을 채운다. 반복된 원의 선들로 서로 연결되고 중첩되어 선에서 면으로 채워진 이 형상은 본인의 직관에 의해 완성된다. 또한 노랑색 오일 파스텔의 선적인 요소가 점점 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일 파스텔의 물성과 특징을 부각시킨다. 그러므로 [작품1]에서의 빨강색 원형과는 달리 노랑색 재료의 특성으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작품2]는 [작품1]과 원의 크기는 비슷하지만 형태적 측면에서는 중앙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의 노랑색 오일 파스텔이 더 짙은 색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황색의 안료는 적색의 안료보다 첨가물의 비중이 적고 약해서 가벼울 뿐만 아니라 반투명한 금강광택(金剛光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반복적 행위를 하면 하게 될수록 색이 위로 떠서 옆으로 밀려난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의 중첩으로 인해 노랑색 오일 파스텔과 파스텔이 부딪히는 현상으로,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그리다보니 오일 파스텔의 가루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원의 중심부에서 조금 옆으로 밀려난 부분에 더 짙게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오일 파스텔이 가지고 있는 색마다의 특징들로 인해 같은 형상으로 그릴지라도 서로 다른 느낌을 주게 만드는 것이다. 이 원의 형태에서는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는 짙고 무거우며, 외곽 부분에는 그에 비해 덜 진하고 가볍게 그려진다. 이러한 원의 형태는 중앙은 규칙적인 원들의 반복으로 구성되어있지만 외곽은 타원 또는 다양한 방향성의 곡선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적 형상, 형태임을 보여준다. 직관에 의한 원을 그릴 때마다 모두 다른 형상으로 나타내어지는데, 그것은 감정의 특징적인 면을 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색에 따라서 원의 감정적 형상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상태를 표현한다. 그리고 검정색 바탕의 표현은 [작품1]과 같이 검정색 오일 파스텔을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사회적 감정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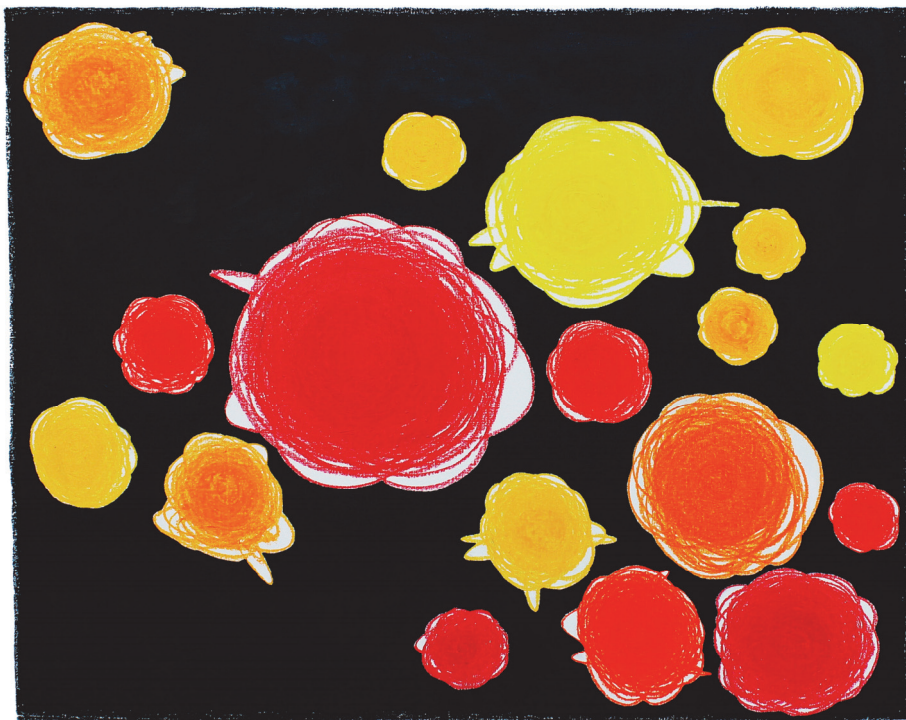
[도판12] [작품3]의 제작과정 순서도

[작품3]에서는 [작품2]의 노랑색 원형의 감정적 형상이 7개로 나누어진 구성을 하고 있다. 우선 본인은 바탕 면의 밑 작업이 끝나면 노랑색 오일 파스텔로 감정적 원형의 형상을 그리는데, [작품1], [작품2]와 같이 화면 중심에서부터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순간적인 직관으로 [작품2]의 복수화된 형태를 그리고자하는 생각을 가지고 큰 원부터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때 [도판12]의 순서대로 ①번 원형을 중심 지표로 삼아 먼저 오른쪽 상단에 배치하고 그 다음 ②번 원형을 구성해 가면서 ③번, ④번, ⑤번순으로 형태를 그려 나간다. 그리고 ⑥번, ⑦번의 원형은 본인이 생각하는 화면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작게 표현된다. 원의 형상표현이 완성되면, [작품2]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원형들의 외곽에 검정색 오일 파스텔로 선을 긋고 채색한다. 그러나 [작품1], [작품2]와는 다르게 하나의 원형이 아닌 여러 개의 원형으로 표현되어 있어 [작품1], [작품2]에서는 사회적 감정이 큰 감정적 원의 형상에 짓눌린 느낌으로 채색된 것이라면, [작품3]에서는 사회적 감정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감정적 원의 형상에 둘러싼 억압이 많아져 원의 외곽을 감싸고 있는 사회적 감정의 배경채색에 있어서는 좀 더 힘든 과정을 겪는다. 그러므로 본인은 [작품1], [작품2]보다 [작품3]에서 본질적 감정 외곽에 둘러진 사회적 감정의 배경표현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린다. 즉, 본인은 감정적 원의 형태가 많을수록 배경채색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표현한다. 모든 것이 표현되어지고 나면 후에 마무리 작업을 시행하고 작품을 완성시킨다.

[작품3]에서는 [작품2]에서 표현되어진 크고 강한 본질적 감정이 사회적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타협적인 모습으로 갖춰나가며, 자신의 의지에 의해 나누어지게 된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감정은 아무리 큰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면 점점 작아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며, 잊어버리고 쇠퇴되는 과정을 겪는다. 본인은 이러한 감정의 표현을 마치 아메바²⁴⁾와 같이 분열되고 분절된 형상으로 보여줌으로써, 비시각적 현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감정 자체로서의 표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24) [네이버 국어사전]-아메바(amoeba):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단세포 원생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4712600> (2017.05.01.검색)



[작품4] Reds, Oranges, Yellows,
oil pastel on panel, 72.7x90.9cm, 2016

본 작품은 [작품3]과 같이 단색으로 조합된 작업과 달리, 원의 감정적 형상들이 보다 더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표현되며 세 가지의 난색들로 구성된다. 먼저 본인은 바탕 면을 완성한 뒤, [작품3]과 동일한 순서로 빨강색 오일 파스텔을 가지고 큰 원의 감정적 형상을 시작으로 하여 점점 작은 원의 감정적 형상을 그려 나간다. 빨강색 감정적 원형을 중심으로 참고하여 주황색 감정적 원형, 그리고 노랑색 감정적 원형을 차례대로 그리며 그 다음 작아지는 빨강색 감정적 원형의 순서로 반복하여 18개의 원형으로 화면을 구성한다. 빨강색 오일 파스텔을 첫 번째로 사용하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붉은 색이 사람의 감정을 빨리 다가가 달아오르게 하고 일으키는 색으로서, 붉은 색상부터 화면에 배치하여 감정적 부분을 자극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본인은 진한 색상에서 연한 색상의 순서를 되풀이하여 작품 화면에서의 공간감을 주고자 한다.

빨강색 오일 파스텔로 본인의 직관에 의한 지정되어진 위치에서 원을 반복적으로 그리며, 원의 중앙 부분부터 화면을 질게 채워 나간다. 이때 원의 크기는 매 순간순간 달라지며, 본인은 직관된 크기와 색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화면의 균형을 맞춘다. 본 작품의 원형들에서는 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작품1], [작품2], [작품3]보다 더 열고 불규칙적인 곡선, 타원, 어긋난 방향성의 선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원의 외곽 형상에서 자유분방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원의 중심점에서는 정원에 가깝게 반복적으로 색을 채우며 그리지만, 원의 외곽으로 갈수록 외곽 부분의 불규칙적인 선들을 의도적으로 빠르게 그리는 것과 동시에 다른 색들의 배치를 생각하며 표현한다. 본인은 본 작품의 원형들을 그리는 과정에서 본인이 만족하는 원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원 하나하나에서의 어색한 선들을 피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각각의 색마다 그려진 원의 형상은 수많은 원들의 반복된 선을 통한 색면으로 표현되어진다. 이는 색마다 오일 파스텔의 특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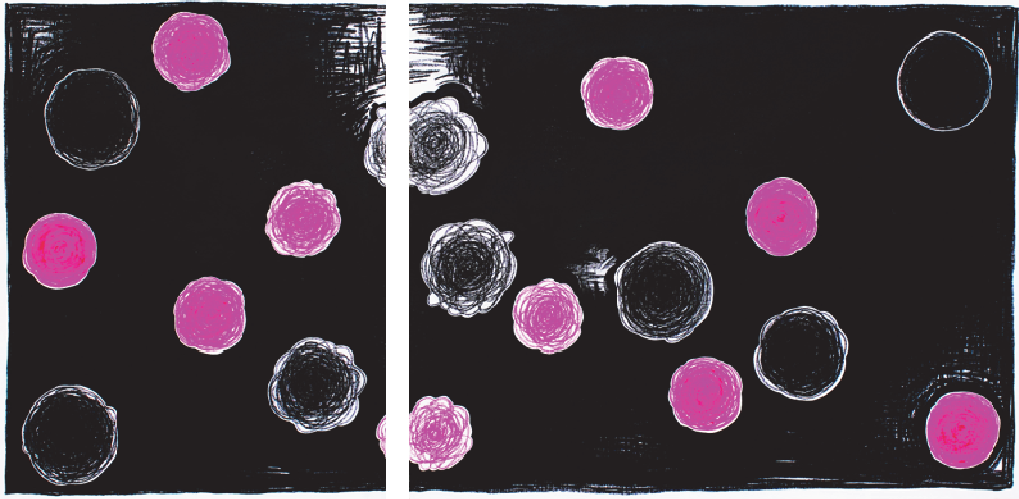
엿볼 수 있으며, 오일 파스텔 안료의 농도 차이로 인해 원을 구성하는 색에서 서로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전 작품들의 감정적 원형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되, 외곽으로 갈수록 곡선의 형태가 나선형, 자유분방한 선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다른 느낌의 감정적 원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 반복적 행위로 그려지는 원의 감정적 형상은 타원과 곡선을 동반한 둥근 외곽의 형상만이 아닌 간혹 튀어나와있는 뿔과 같은 불규칙한 형상을 갖고 있는데, 이 형상은 정형화된 원의 반복적 구조에 대한 거부, 수용과 더불어 직관과 무의식 그리고 우연적 감정에 의한 충돌, 이탈이 동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색마다 나누어지거나 쪼개어진 본질적 원의 감정 형상들이 사회적 감정과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감정들이 존재하는 모습에서 정리되어지지 않은 마음 상태를 나타낸 심상이다. 이는 오른쪽에 치중되어 있는 감정들의 모습과 왼쪽 상단에 흩어진 하나의 감정이 드러난 모습의 구도로, 다양한 감정적 움직임의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에서는 다양한 감정의 형태와 색을 관찰할 수 있으며, 본 작품에서 사회적 감정의 배경은 이러한 감정적 형상을 바탕으로 [작품3]과 같은 방법을 통해 채색하고 마무리 작업까지 하면 작품이 완성된다. 다만, 본 작품은 본질적 감정의 형태가 다수 많아져 각각의 감정마다 사회적 감정에 둘러싸인 모습을 하고 있으므로 배경부분에 있어서는 [작품3]보다 더 위압되어 그려진다.

원색의 빨강, 주황, 노랑과 같은 난색의 색조와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본 작품은, 많은 색들이 사용되어 긍정적이고 활기찬 감정들을 가져다준다. 본인은 약동, 활력, 만족, 적극성의 상징을 가진 따뜻한 느낌의 주황색을 새롭게 선택하여 관람객의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 내어 명랑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동시에 주황색은 심리적 기능저하를 막아주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역할²⁵⁾을 함으로서 사회적 성향과 상반되는 구조로 표현하고 있다. 덧붙여 색상환의 배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황색은 빨강색과 노랑색의 강렬함을 완화시키고 중재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작품에서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공간감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본 작품은 화면구성 있어 색의 평형뿐만 아니라 울동감과 동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본인은, 난색 계열의 감정적 형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이에게 심리적인 힐링을 가져다주고자 한다.

25) 박연선, 『색채용어사전』, (도서출판 예림, 2007.08.23)
-주황(朱黃, Orange)



[작품5] Pink and Black,
oil and oil pastel on panel, 91x189.5cm, 2016

본인은 [작품5] 작품제작을 위해 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기존 작품과는 달리, 30F, 50F의 두 나무 판넬을 사용한다. 이 두 개의 판넬은 높이는 같지만 넓이를 다르게 배치한 프레임으로, 각각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두 판넬을 붙임으로써 새로운 화면을 만들어 낸다. 본 작품에서는 앞선 작품들과 다르게 색이 들어간 바탕 면의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본인은 캔버스 천이 씌워진 바탕 면에 젯소를 열은 농도에서부터 점차 진한 농도까지 10번 정도 칠한 다음, 빨강색 아크릴 물감을 젯소와 함께 1:20의 비율로 고루 섞어 핑크색이 되도록 만든 후 화면 위에 3번 덧바른다. 아크릴 물감은 빨리 건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얼룩이지지 않도록 큰 붓으로 팔 전체를 이용하여 빠르게 채색한다. 그리고 분홍색의 바탕 면이 완성되면, 본인은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두 판넬을 붙여 놓은 상태에서 작업에 들어간다. 본 작품에서는 검정색과 분홍색 오일 파스텔, 두 가지의 색으로 감정적 원형을 표현한다. 이때 본 작품은 두 감정적 원형의 지름을 색마다 같게 표현된다. 각각의 색에 같은 지름으로 형상화시키기 위해 OHP필름지에 15cm, 20cm의 원을 그리고 칼을 이용해 자른 후, 원이 오려진 OHP필름지를 판넬 위에 올려놓고 그 원의 지름 안에서만 그려지도록 유의하여 그린다. 첫 번째로 20cm의 큰 지름을 가지고 있는 OHP필름지를 나누어진 두 화면의 중앙에 올려놓고 검정색 오일 파스텔을 이용하여 원의 형상을 만들어 나간다. 본 작품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스케치 없이 본인의 직관으로 표현하며, [작품5]부터는 감정적 원형이 가지고 있는 선의 중첩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여 원형마다 농도의 차이를 나타내어 준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리는 원의 형태에서는 중심이 외곽보다 진하게 그려지지만, 이전 작품들처럼 뒤 배경이 보이지 않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분홍색 배경이 보이게 표현하여 준다. 그리고 원형의 중심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원을 그려나가며 점차 외곽으로 빠져나갈수록 불규칙적인 곡선으로 그려나간다. 하나의 원형이 완성되면 OHP필름지를 순간적인 직관에 의해 다른

위치로 옮겨 놓고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데, 처음 그려진 원의 형상보다 점차적으로 짙고 정원에 가까우며 다듬어진 형태로 그려 준다. 따라서 첫 번째 원의 형상을 기준점으로 하여 멀어질수록 원형은 선의 중첩이 점점 많아져 짙게 표현되어지고, 외곽은 정원의 형상과 같이 규칙적이고 정리된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본인은 검정색 감정적 원형의 화면 구성이 모두 이루어지면 같은 방법으로 분홍색 오일 파스텔로 원의 형상을 표현한다. 15cm 지름의 원이 잘려나간 OHP필름지를 나누어진 화면 위에 올려놓고 검정색 감정적 원형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검정색 원형의 표현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려준다. 본인은 그려진 검정색 감정적 원형의 구성을 보면서 분홍색 감정적 원형들을 배치하여 화면에서의 밸런스를 맞춘다.

본 작품에서 두 원의 형상은 각 색마다 동일한 지름의 크기를 하고 있는 이상화 된 감정적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본인은 이 모습을 처음 그리는 원의 형태에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모습으로 열게 그림으로써 심리적인 거부와 수용으로 정리되어지지 않은 불안정한 감정적 형상을 그린다. 처음 그린 감정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규칙적이고 정형화된 원을 짙게 표현하여 감정적 상태가 정리되어지고 안정을 되찾은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원의 형상은 본질적 감정이 갑작스럽게 생기게 된 첫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점점 자신의 의지와 현실적 상황에 맞게 대처함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평안해지면서 감정적으로 차분해지고 정리되어지는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해, 원의 형상에서 일정한 감정의 크기를 갖지만 점점 선의 중첩을 가중시켜 색의 농도차이를 다르게 함으로서, 각각의 감정 속에서 처음 감정상태가 어떠한 자신의 의지나 결심으로 인해 굳게 다져지는 심리적 현상을 나타낸다.

원의 형상이 완성되고 난 후 본 작품부터는 검정색 오일 물감에 붓을 이용하

여 감정적 원형들의 선에 닿지 않게 2~3mm정도 띄운 후 외곽을 두른다. 이전 작품들에서는 검정색 오일 파스텔로 감정적 원형의 테두리를 닿을 듯 말 듯 하게 외곽선을 그어 바탕 면을 칠했다면, 본 작품에서는 감정적 원형의 외곽선에서 약간 띄워진 간격에서부터 붓을 사용하여 외곽을 그린다. 이로써 오일 파스텔과 오일 물감 사이의 물성과 붓 터치로 인해 둘의 관계에 긴장감을 더하게 된다. 이전 작품들에서는 전 화면구성을 오일 파스텔로 사용하였지만, 본 작품에서는 오일 물감을 사용하게 되면서 작품에 내용적 의미를 덧붙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 본인은 검정색 오일 물감을 이틀에서 삼일 말린 뒤 검정색 오일 파스텔을 이용하여 배경채색에 들어간다. 본 작품의 배경채색에 있어서는 전 작품들과 다르게 오일 파스텔의 더욱 자유로운 선의 요소를 부각시키고 여백의 공간을 중간 중간 남김으로서 재료의 물성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본인은 감정적 원형의 외곽에 그려진 오일 물감 위로 오일 파스텔을 덧칠해 나간다. 오일 물감이 칠해진 부분에 오일 파스텔을 덧칠하게 되면 더 두껍게, 아닌 부분은 그보다 얇게 채색되어진다. 이것도 또한 본인의 직관에 의해 배경을 채색하는 것으로 칠하다 보면 사각형의 분홍색 화면의 경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본인은 오일 파스텔로 배경의 범위를 틀에서 2cm정도 띄워 그려준 뒤, 손가락과 손목에 힘을 풀었다가 주었다가 반복하며 여백을 남기며 바탕 면을 채색한다. 이렇게 칠하는 이유는 사회적 배경의 여백 공간에 선적인 요소로 표현할 때에는 힘을 적게 주어 가볍게 나타내고, 여백 없이 그려지는 공간에는 힘을 많이 주어 어둡고 무겁게 그려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적 원형의 외곽부분처럼, 화면이 나누어진 부분에 사회적 감정인 틀과의 경계 부분에는 오일 물감으로 외곽을 표현하지 않고 오일 파스텔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큰 틀에서 사회적 감정의 부분이 넓힐 수 있는 감정적 요소로 보여주고자 남겨둔 것으로서, 더 거대한 감정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고자 함이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드러나는 드로잉의 선적인 여백

으로 나타내어 선의 중첩으로 인한 감정적 원의 형태와 조화를 이뤄준다. 또한 오일 파스텔의 선적인 요소와 오일 물감의 붓 자국을 통해 드러나는 대비 효과로,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성의 의미와 함께 과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로써 추상적 형상이 모두 그려지면 전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계의 바니시 작업을 시행한 뒤 완성시킨다.

본 작품에서는 두 개의 틀, 두 가지의 색 사용으로 각각 색상에 같은 지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감정적 검정색 원형 8개, 분홍색 원형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두 개의 틀에서는 작은 화면과 큰 화면이 이어진 것으로, 두 화면의 공간이 새로운 화면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의 변화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기존 작품의 배경과는 다르게 색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이상향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작품에서는 분홍색과 검정색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본인은 분홍색 오일 파스텔을 선택함에 있어서 분홍색이 담아내고 있는 부드러움과 행복의 느낌²⁶⁾을 이상적인 환경의 느낌으로 적용하고자 하여 보는 이에게 온화한 감정과 만족한 기분²⁷⁾의 감정적 효과를 전해주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감정을 담고 있는 검정색 배경의 색이 원형의 본질적 감정으로 함께 들어옴으로서, 개인의 본질적 감정에 대해 느껴보고 체험하여 공감을 가지고 서로 위하고자 함이다. 이는 사회도 개인과 다를 바 없이 본질적 감정의 형태를 가지게 될 수 있으며, 그것이 또한 함께 공존함으로서 이상화되는 모습을 지향한 관점으로 그린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의 본질적 감정은 개인보다 큰 지름의 원으로 표현하여 사회가 우위에 있음을 크기로 제시하여 보여준다. 따라서 본인은 분홍색과 검정색 각각의 다른 지름을 동일하게 그려내어 둘의 본질적 감정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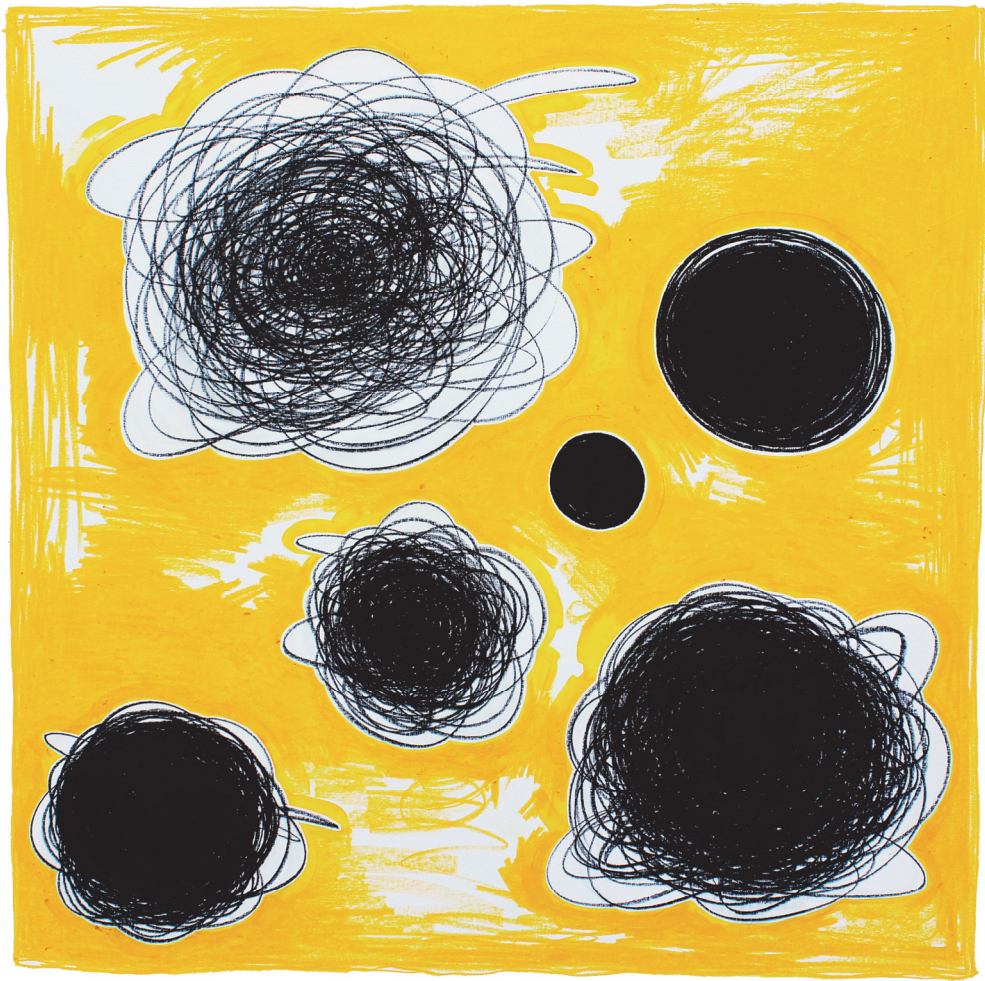
26) 『색채용어사전』, (도서출판 예림, 2007.08.23)

-분홍(粉紅, Pink)

27) 황정선, 『일 잘하는 그녀의 컬러 스타일북』, 「따뜻함과 섬세함, 여성스러움은 핑크를 따라갈 수 없다」, (황금부엉이, 2011.09.14)

안정되고 평화로운 모습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작품에서는 개인의 분홍색 감정적 원형이 형상화 되며, 검정색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감정이 개인의 감정 형태로 들어오게 됨으로서 사회적 감정의 모습에서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본 작품부터 본인은 원형의 외곽 부분에 오일 물감을 묻혀 붓을 사용함으로써 [작품1], [작품2], [작품3], [작품4]에서 사용되어진 검정색 오일 파스텔의 둔한 외곽선과는 다르게 사회적 감정과 본질적 감정과의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둘의 감정적 느낌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감정에서 느낄 수 있는 딱딱하고 닫힌 경계선의 느낌을 붓의 특징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감정의 배경에서 여백적 공간은 본질적 감정의 생성 여지를 만들어 준 것으로서, 이상적 환경의 사회적 측면에서 개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로 문을 열어둔 것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처럼 본인은 본질적 감정의 형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정의 배경에서도 드러나는 작업의 진행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감정 자체가 어느 한 시점에 멈춘 것이 아닌 현재 흘러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작품에서의 감정적 형상은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감정적 방향을 그리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회적 감정이 개인의 본질적 감정에 대한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시각으로 표현되어진 작품이다.



[작품6] Yellow and Black I ,
oil and oil pastel on panel, 130.3x130.3cm, 2016



[작품7] Yellow and Black II,
oil and oil pastel on panel, 130.3x130.3cm, 2016

[작품6], [작품7]에서는 [작품3]을 변형하여 주객전도(主客顛倒)²⁸⁾화 시킨 작품이다. 본인은 두 작품에서 100S 사이즈로 된 정 사각형의 나무 판넬과 단색의 오일 파스텔을 사용한다. [작품6], [작품7]의 밑바탕 작업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작품1], [작품2], [작품3], [작품4]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또한 [작품6], [작품7]은 같은 방법으로 화면이 구성되어지며, 검정색과 노랑색 두 가지의 색으로 그려진다. 먼저 본인은 [작품3]의 그리는 순서를 토대로 하여 검정색 오일 파스텔로 가장 큰 감정적 원형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본인은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위치에 큰 원의 형상을 중심축으로 두고 다른 크기의 원을 반복적으로 그려 나간다. 첫 번째 원을 그릴 때에는 원의 중심부분 부터 그려나가는데 흰 바탕 면이 부분마다 보일 정도로 표현되어지며, 원의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선의 중첩을 적게 하여 다양한 곡선의 형태로 시각화시킨다. 이러한 원의 외곽부분에는 본인이 원하는 형상이 나올 때까지 불규칙적이고 자유로운 곡선을 그린다. 그리고 앞의 원형을 지표로 하여 그 다음 크기의 원형 위치를 순간적인 직관으로 원형을 표현하며, 전에 그려진 원의 형상 보다 조금씩 선의 중첩을 많이 하여 바탕 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점차 짙게 그려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원의 형상들은 처음 그려낸 원형과는 다른 모습으로, 정원에 가까운 짙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원의 형상들로 그려진다. 따라서 본인은 [작품5]에 표현되어진 원형들의 농도와 같이, 처음 그려진 울퉁불퉁한 큰 원의 형상을 기준으로 하여 점차 정원에 가까운 다듬어진 형태로 진하게 그려 나간다. 본인은 이러한 수많은 원들의 반복적인 작업을 하나씩 마무리 지을 때마다 전체적인 화면에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몇 번을 더 생각한 다음 원의 형상들을 배치한다. [작품5]에서는 동

28) [네이버 한자사전]-주객전도(主客顛倒): 주인(主人)은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主人)처럼 행동(行動)을 바꾸어 한다는 것으로 입장(立場)이 뒤바뀐 것.
<http://hanja.naver.com/word?q=%E4%B8%BB%E5%AE%A2%E9%A1%9A%E5%80%92>
(2017.04.12.검색)

일한 지름의 크기로 그려지지만, [작품6], [작품7]에서는 원형의 지름 크기가 다르게 그려지며 농도가 진할수록 정돈되어진 형상을 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각각의 원들이 선이라는 요소에서 면으로 바뀔 때, 선과 면의 요소가 결합되어진 원의 형상에서 다양한 양감을 느낄 수 있고 입체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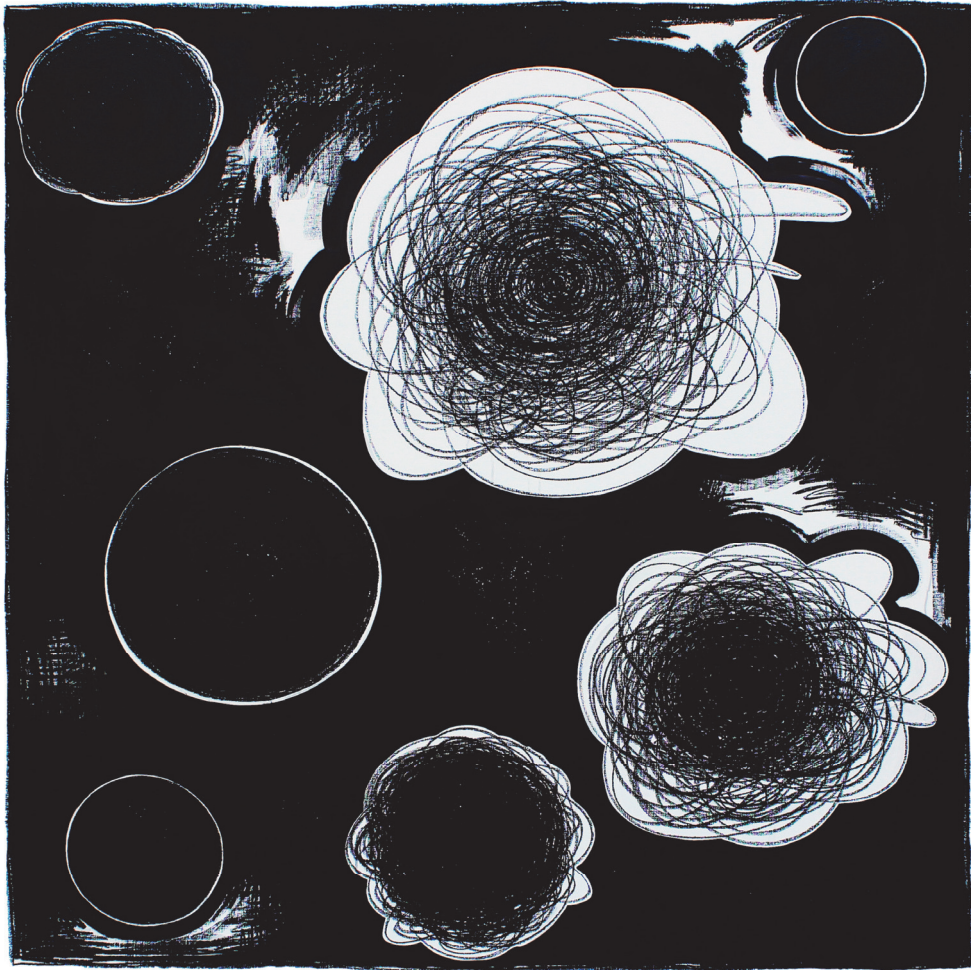
이와 같이, 원이라는 형태의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형상은 사회적 감정과 만나 처음에는 거부와 충돌의 반란을 일으키지만, 점점 또 다른 의지로 감정의 안정과 평안을 되찾아 정리되어지는 형상을 보여줌으로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현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6], [작품7]의 배경에서는 노랑색 오일 물감과 오일 파스텔을 사용한다. [작품5]와 같은 과정으로 감정적 원형의 외곽선과 2~3mm 간격을 띄운 후 붓을 이용하여 붓 자국이 드러나도록 외곽을 두른다. 이렇게 외곽을 표현하고 오일 물감을 말린 후에 노랑색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여 오일 물감 위로 덧칠해 가며 본인의 직관으로 배경을 채색한다. 본 작품도 마찬가지로 배경을 채색하다보면 흰 바탕의 화면과 부딪히게 되는데, 본인은 흰 바탕과 간격을 2cm 정도 띄워 두고 사각의 테두리를 두른 뒤 채색을 진행한다. 배경을 칠할 때에 드로잉적인 요소와 여백이 드러나게 표현하여, 사회적 감정에 있어서 본질적 감정의 원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원의 감정적 형상표현과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이전 작품들에서는 두 작품과는 다르게 검정색 배경을 하고 있어 오일 파스텔을 통하여 오일 물감과 겹쳐지는 층이 보이지 않았는데, 본 두 작품들에서는 배경을 칠할 때에 노랑색 오일 물감이 오일 파스텔에 비취져서 덧칠을 함에도 불구하고 층이 생기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6], [작품7]에서는 다른 작품들의 배경보다 더 입체적이고 회화

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완성된 작품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오일 파스텔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오일 페인팅 전용인 매트 바니시 스프레이를 분사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이는 노랑색 오일 파스텔의 배경에 검정색 오일 파스텔의 가루가 닿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색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본 두 작품에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작품6]에서는 6개의 감정적 원형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왼쪽 상단의 큰 원형으로 된 감정적 형태를 시작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 크기의 순서대로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감정적 원형의 형태를 그리고 난 후 본인의 직관에 의해 원을 배치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작품7]에서는 7개의 감정적 원형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오른쪽 상단의 큰 원형의 감정적 형태를 시작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점차 정리되어진 감정적 원형을 그림으로서, 본인은 작품화면 안에서의 밸런스를 생각하며 배치한다. 본 두 작품 모두 본인의 직관으로 표현된 형상으로 [작품7]은 [작품6]과 1개의 감정적 원형의 개수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직관적으로 그린 화면의 구성에 있어서 조형적 측면에서의 안정된 모습을 주고자 함이다. 이러한 감정적 형태의 구성이 완성되면 본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경을 채색하고 마무리 한다.

즉, 본 두 작품에서는 개인의 감정과 사회적 감정의 입장이 바뀐 모습을 모색하여 표현한 것으로, 서로의 달라진 환경에서도 결코 다르지 않은 상황과 감정의 상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인은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바꾸어 생각해 볼 때, 둘의 감정적 형태가 그러한 형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을 깨닫게 해주고자 한다. 그러므로 감정을 주제로 표현되어지는 본인의 작품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 과정이 드러난 진행형의 방식으로 도출해냄으로서, 현재의 시점에서 역지사지의 감정으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회유하고자 한다.



[작품8] Black,
oil and oil pastel on panel, 130.3x130.3cm, 2017

본 작품은 앞에서 논의 되어진 난색 계열의 색 조합으로 구성된 작품과 다르게 단일의 검정색으로만 표현된다.

본 작품은 [작품6], [작품7]과 동일한 화면 크기에 검정색 오일 파스텔과 오일 물감만이 사용되어진 7개의 감정적 원형들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앞의 작품과 같은 순서로, 본인은 바탕 면이 완성되면 검정색 오일 파스텔로 왼쪽 상단에 있는 크기가 큰 형태부터 그려나간다. 원의 중앙은 선의 중첩을 외곽보다 많이 하여 정원의 형태로 짙게 그리고, 외곽은 반복적으로 불규칙한 타원형의 곡선을 얇게 그려 표현한다. 본인은 원의 크기를 제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맨 처음 그리는 원을 크게 그려 화면의 중심이 되는 축으로 두고 구성한다. 큰 원형을 중심으로, 오른쪽 하단에 두 번째 크기의 감정적 원형을 첫 번째 원형보다 선의 중첩을 많이 하여 원의 중심부 쪽으로 갈수록 짙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리게 될 다듬어진 원형은 화면의 구성과 구도를 생각하면서 빈 공간에 표현한다. 점차적으로 원의 외곽이 정리되어진 모습을 그리면서 정원에 가까운 원형은, 바탕 면을 칠할 때 주는 힘과 동일하게 하여 흰 색의 면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채워 그린다. 이 또한 그렇듯 본인의 직관으로부터 그려지는 감정적 형상이 하나씩 완성되면, 그때그때 화면상의 구도를 살펴가며 배치해 나간다.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만들어지는 원형은 다양하고 수많은 곡선들이 함께 생성되고 결합되어진 형태로서 서로 연관된 화면을 이룬다.

본인은 원의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방향성과 불규칙한 곡선들의 감정적 원형을 먼저 그리고 점점 정원에 가까운 나머지 감정적 원형을 그려냄으로서, [작품6], [작품7]과 비슷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본인은 오일 파스텔로 그려내는 시작과정에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흰 화면에 대한 불안감과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첫 감정적 원형에 담아내고 있지만, 스스로의 의지로 점점 화면이 갖춰지고 채워질 때마다 다듬어지고 정리되어진 감정적 원의 형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의 감정적 형상은 일상생활 속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을 시각화시킨 것으로서, 본인은 우리의 본질적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본인은 이렇게 구성되어진 원형의 감정적 형태 외곽을 2~3mm 띄워 검정색 오일 물감으로 힘 있게 그어주고, 배경을 [작품6], [작품7]과 같은 형식으로 칠하되 검정색 오일 파스텔로 여백의 공간을 생각하며 흰 바탕화면을 채색한 다음 바니시를 뿌려 완성시킨다. 그러나 본인은 본 작품부터 배경을 칠할 때에 오일 파스텔의 옆면을 활용하여 약간의 명암을 주고 불규칙한 선들로 채색하는 방법을 구사해 색면의 추상적 형식에서 회화성이 포함되어있는 화면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표현방법을 통해 감정적 원의 형상과 배경에 시각적 차이를 나타내고, 작품화면에서는 오일 물감의 붓 자국 흔적과 오일 파스텔의 질감, 특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또한 작품에서는 회화성이 더해져 깊이 있는 화면표현으로 인해 감정적인 면을 더욱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 감정의 딱딱하고 답답한 느낌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감정적 원형과의 소통, 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인은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보다 많은 시각적 즐거움과 다양한 감정적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작품에서는 한 가지의 검정색으로만 구성된다. 본인은 사회적 감정을 상징하고 있는 검정색 오일 물감과 오일 파스텔을 사용해 사회가 양면의 감정에 대입되어 바라보는 시선을 그린다. 이로써 사회적 감정의 색이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 작품의 화면이 다소 어두운 모습을 하고 있다. 사회의 입

장에서 개인의 본질적인 감정과 사회적인 감정, 둘의 입장을 충실히 경험하면서 각각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적 모습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감정이 앞으로의 변화에 성찰을 기하고자 한 작품이다. 다시 말해, 한 틀에서 큰 범위를 가진 사회적 측면의 감정으로 양간의 감정적 위치에서 유심히 관찰하고 고찰하여 현재보다 발전된 미래가 되기 위한 과정적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전 작품들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색들로 형상화하여 나타내고 있지만, 본 작품에서는 한 가지 색으로 두 감정을 그림으로서 이중적이고 중의적인 형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9] Red and Black,
oil and oil pastel on panel, 130.3x130.3cm, 2017

본 작품은 ‘Circles’의 시리즈 중 마지막 작업이다.

본인은 이번 [작품9]에서 [작품6], [작품7], [작품8]과 같은 크기의 판넬, 그리고 두 가지 색의 오일 파스텔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여 빨강색 원 2개, 검정색 원 5개로 총 7개의 감정적 원형을 화면에 구성한다. 본인은 [작품3]~[작품8]과 같이 동일한 작업의 방법으로, 완료된 흰 바탕 면에 빨강색 오일 파스텔을 가지고 왼쪽 상단에 반복적이고 불규칙적인 선으로 원의 형상을 우선 배치한다. 그리고 바로 우측 아래에 동일한 빨강색 원의 형상을 이전 원형보다 작은 크기로, 선의 중첩을 보다 더 많이 하여 원의 중심부를 짙게 표현해 준다. 두 개의 빨강색 원형을 구성한 뒤에 본인은 검정색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여 원의 형상을 그린다. 맨 처음에 그린 빨강색 원형 보다 좀 더 외곽이 정리된 원의 형태로 작고 진하게 표현하여 검정색 원의 형상에 첫 기준점을 만든다. 본인이 세 번째로 그리는 원을 기준으로 삼아 화면의 비율과 균형을 보며 나머지 4개의 원형을 표현한다. 나머지 원을 그릴 때에 점차적으로 정원에 근접한 형태로 원을 그리면서, 마지막 원형은 바탕화면의 흰 부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하게 형상화시킨다. 따라서 본인은 구체적인 스케치 없이 진행되어지는 원의 형상표현에 매 순간마다 크기가 달라지지만, 반복적으로 원을 그리는 행위는 모든 작품에서 동일한 방법을 통해 그려진다.

두 개의 빨강색 원형은 검정색 원형에 비해 선의 중첩이 상대적으로 적어 덜 진하며 자유로운 곡선의 방향성을 띠고 있다. 반면 다섯 개의 검정색 원형은 둥글둥글하고 완만한 곡선으로 외곽이 표현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점점 선의 중첩이 많아 원의 중심부가 무겁고 진하다. 두 역할의 감정이 한 화면에 들어 오면서 본질적 감정에 대한 형태는, 어떠한 입장에 있어서도 비슷한 형태의 성격과 느낌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인은 이렇게 매번 달라지는

반복적 원의 형태를 그리는 과정에서 본인의 감정이 녹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원의 형상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본인 자신도 모르는 순간 감정적으로 표현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해지지 않은 형태의 모습에서 마치 우리의 감정과 매우 닮아 있으며, 본인은 매 상황에 따라 가늠하지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는 특성을 가진 감정을 시각적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완성된 감정적 원형 외곽의 바탕표면에는 검정색 오일 물감을 사용하여 외곽을 두른다.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기존 작품들과 약간 상이하게 진행된다. [작품5]~[작품8]에서는 2~3mm의 간격을 두고 오일 물감으로 외곽을 둘렀다면, 그와 다르게 [작품9]에서는 본인의 직관에 의한 외곽으로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그리는 방법을 시도한다. 따라서 본 작품에서는 외곽을 그릴 때마다 다른 간격으로 표현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검정색 오일 물감으로 들쭉날쭉한 간격의 테두리를 그린 다음, [작품8]의 배경과 같은 방식으로 오일 파스텔의 옆면과 윗면 모두 사용하여 채색하고 작품을 마무리 한다. 본인은 본질적 감정의 원형과 사회적 감정의 배경에 불규칙한 간격을 두어, 보다 큰 사회적 감정으로서 본질적 감정이 커질 수 있는 약간의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확보해 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감정관계에 있어서 근접하기도 하지만 때론 원만한 거리를 가지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양상을 뜻하며 가까운 미래에 나타나게 될 이상향을 그리고 있다.

[작품9]에서는 빨강색과 검정색 두 가지의 원색 사용으로 [작품5]의 구성형태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열정의 의미를 지닌 빨강색과 어둡고 막막한 현실을 비추는 검정색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두 본질적 감정의 원형과 검정색 사회적 감정의 배경 구성은 추상적²⁹⁾요소와 회화적 요소를 모두 엮을 수 있

29) [네이버 국어사전]-추상적(抽象的):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는 작업으로, 색면의 요소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보이게 한다. 또한 개인의 본질적 감정에 사회의 감정이 들어오게 됨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본질적 감정이 한 공간에 존재하는 화면 구성을 하고 있다. 이 상황은 개인의 본질적 감정이 사회의 본질적 감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사회는 개인과 같은 본질적 감정의 일원인 동시에 사회적 감정도 함께 가짐으로서 양간을 이해하고 타협하며 아울러 함께 공존하는 이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생활환경이 이상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지향되어야 할 양상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고정되어 있는 표현이 아닌 진행되어지는 과정적 표현방법을 구사함으로써 시대적 상황과 감정에 맞춘 작품을 연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진 색과 반복적인 형태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감정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자 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자신만의 본질적 감정을 이끌어내어 억압된 감정을 해소시키고자 한다.

Ⅲ. 결 론

본인은 석사 청구전 ‘Circles’에 전시한 작품들을 작업하는 동안 현대사회의 환경에 살아가는 인간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내면의 본질적인 감정과 사회적인 감정을 탐구하여 감정의 근원적 배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인간의 감정을 소재로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재료와 조형적 측면에 깊은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내재한 근본적, 본질적인 감정을 자극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형상으로 나타내어보고 시도해 보며 그 의미와 개념을 구축시켰다. 또한 이와 관련된 미술적 학문에 접근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작품의 조형적 의미를 재정립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품에서 구현되어진 이미지는 본인만의 작품세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작품에 있어서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의 작품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작품에 옮기고자 기본적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물이며, 현대사회에서 받는 심리적 고통의 접근을 시작으로 현대인의 감정 해소가 되길 바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본인은 평소 일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자신의 본질적 감정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듦으로써, 힘든 감정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하고자 한다. 이로써 표현되어진 작품은 오일 파스텔을 이용한 반복적 원의 형태로 추상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반복적으로 그려진 원형의 추상적 이미지는 오일 파스텔이라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와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익숙한 재료와 질감을 통해 형상화된 이미지는 관객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또한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원으로 인해 감

정의 울림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형상화 되어진 추상적 형태의 감정은 끝없는 시간과 힘이 축적되어 생성과 쇠퇴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만들어 지는 모습에서 우리의 본질적 감정을 깨달을 수 있으며, 작품을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든다. 또한 본인의 직관에 의해 배치된 화면구성은 크고 작은 감정의 원형들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감정적 형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배가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인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화면 속 본인의 감정과 정신, 심신이 이입되어 명상과 사색이 가능한 시간을 보냈다. 결과적으로, 작품에 표현되어진 것은 재료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상, 관념이 서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연구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간의 감정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서 그에 대한 형성 배경과 내용적, 조형적 측면을 연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본인은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감정’이라는 주제와 비슷한 비가시적인 모습이 많이 녹아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감정이라는 요소로 작품화하는 데에 있어서 무의식적 상태로 반복 행위에 치중하여 그치는 형상이 아니라 화면의 균형과 구성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 본인의 직관에 담긴 관념으로 감정적 형상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 형상의 표현은 사회적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통으로부터 위로 받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적 감정을 되돌아보고자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인의 작품을 관람하는 순간만큼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감정을 들여다봄으로서 감정적 해소와 더불어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길 바라는 마음이다.

본인은 감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간의 감정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함께 동반되어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관찰하고 탐구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같은 생각에 있어서 두 가지의 감정으로 형상화시킨 것에 대해 편중된 시각에서의 작품이 아니었나하는 생각과 의문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현재 느끼는 상황에 맞춰 주력한 감정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로서, 본 작품은 그에 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상황과 감정을 함께 연관 지어 생각하고 탐구해 봄으로써, 본인의 작품관형성에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감정의 대상을 추상적으로 형상화하여 평면에 옮기는 작업 과정에 있어서 그에 관한 의미와 개념을 견고히 구축시키고 확립함으로서, 본인이 의도한 감정의 이미지를 도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본인은 본 논문의 연구 과정에서 찾은 자료의 내용들을 밑거름으로 삼아, 앞으로 작품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성장에도 큰 도약을 계획하는 기회로 다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김선현, [네이버 지식백과]-컬러 테라피(color therapy)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880&contents_id=77507

김선현, 『색채심리학_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 (이담 북스, 2013.04.2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김진한, 『색채의 원리』, (시공사, 2002.03.25), p.146-147, p.169.

[네이버 국어사전]: 아메바, 추상적, 현대병.

[네이버 지식백과]-미술 치료(art therapy),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815&mobile&cid=51007&categoryId=51007>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마르크 로스코, 카타르시스.

[네이버 한자사전]-주객전도(主客顛倒)

<http://hanja.naver.com/word?q=%E4%B8%BB%E5%AE%A2%E9%A1%9A%E5%80%92>

박연선, 『색채용어사전』, (도서출판 예림, 2007.08.23)

: 노랑, 분홍, 색상환, 주황.

방연주, 「 '감정시대' 가 특별한 이유_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
(Pd JOURNAL, 2016.12.16)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03>

백포화랑, 「오일 파스텔과 소용돌이 기법 (Nikos Gyfaktis)」 ,
(장계인의 그림이야기)
<http://blog.daum.net/cmkipia/7660821>

심명섭, 『색채학』 , (보성각, 2001.02.25), p.75, p.112.

안토니오 다마지오, 『데카르트의 오류』 , (중앙문화사, 1999.07.31), p.124-131.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 (월간미술, 1999.01.05)
: 색면회화, 색채감정.

유병선,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와 한국』 , (이화, 2004.03.0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p.15.

이문정,
「야요이 쿠사마(Yayoi Kusama)의 강박신경증적 예술에 나타난 자기 치유」 ,
(한국조형교육학회, 학술저널, 造形教育 第46輯, 2013), p.255-282.

이종수, 『행정학사전』 , (대영문화사, 2009.01.15)

최상복, 『산업안전대사전』 , (도서출판 골드, 2004.05.10)

최인숙, 『칸트』, 「우리 마음에서 감정의 위치」, (주)살림출판사, 2005.01.3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황정선, 『일 잘하는 그녀의 컬러 스타일북』, 「따뜻함과 섬세함, 여성스러움은 핑크
를 따라갈 수 없다」, (황금부엉이, 2011.09.14)

Art MK, 「[국내아티스트] 권순익, 반복을 통한 무아(無我)의 세계(1)」,
(Art MK, 2014.06.17)
<http://www.artmk.kr/artmk/archives/4044>

Art MK, 「[국내아티스트] 권순익, 반복을 통한 무아(無我)의 세계(2)」,
(Art MK, 2014.06.23)
<http://www.artmk.kr/artmk/archives/4161>

ABSTRACT

A Study on the Emotion of Modern People and the Color Expression through the Abstract Shape - Focusing on my Works -

Yi Seung Eun

Departmen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 s University

The study conducted in this dissertation describes the content aspect that is set in the background of abstract image form in the work and the formal aspect that is expressed visually, which is centered on my own work displayed in 'Circles' before the claim for a Master's degree in 2017.

I will analyze, explore and visualize the innate feelings inherent in human beings and the emotional aspect that we are supposed to experience in the environment, which is based on the research on the emotions that modern people feel while living in a present society. Though the sophistication and the specialization of a modern society are creating rapid economic

development, modern people experience, in the process, not only mental anguish and social pressure but also emotional distress of the unsettled present and the unstable future. Today, most people unwittingly suffer from a lot of stress and distress due to the effects of the external social environment like this. In the modern times, these mental stresses are spreading like a trend, which is called 'Modern Chronic Diseases' in the new term. The 'Modern Chronic Diseases' is the term that totally indicates the diseases, such as psychopathy, a pollution disease, an occupational disease, an adult disease and the like, which didn't exist in the past, but arise anew as a modern society becomes overly complicated, diversified and technologized.³⁰⁾ We experience firsth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innate human emotions and the social ones in this real situation and in the process feel deeply the implication of the fundamental, and innate emotions inherent to humans and the significance of existential values. Through this study, I hope to prepare the chance that modern people who live in modern societies will reflect on and realize the innate emotions within their inner side and can find a psychological peace in relation to social sensitivities. Therefore, I will seek to explore and investigate how the assistance of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ssolution can be possible. The exploring orientation is to embody human

30)[Naver Korean Dictionary]-the modern chronic diseases(现代病)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2356800> (2017.03.20.Searched)

emotions through basic formative elements and I will lay emphasis on profoundly studying the meaning and the concept of a 'Circle', a key material of the embodied emotion and producing works.

Generally, we can call emotions invisible shapes. I will visualize these invisible shapes through multiple studies make modern people who focus more on what is visible before the eyes pay attention to the innate invisible emotions within the inner side. I express the innate emotions in the form of abstract circles. The abstract shapes of circles consists of numerous circles that are repeatedly drawn and stacked on the screen using oil pastel. The shapes of this circles are both the expression of the various emotional stresses experienced in a modern society and the abstract form that dissolves them. I will enable both myself and those who enjoy my works to express innate emotions in the form of these abstract circles. In addition, in the works, the flat social emotion with the shapes of abstract circles is expressed, and I show the contrasted relation between these emotions by shape and color. In the aspect of shapes, I express what is desired to be defined in the works by represen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nate emotions and the social ones surrounding them in the form of circles and flats. Additionally, I will find out how to solve the emotion of pain that modern people suffer from based on the

color psychology to solve it, and help people to understand my art world through color factors. Thus I will extend its meaning by distinguishing the importance of the meaning and the role of the circles expressed by human innate emotions on the basis of this study and expressing the correlation between individual and modern emotions in oil pastel with abstract images as main ones. And I would like to specifically address how to present abstract images, and how to change the composition of a screen in this dissertation.

This dissertation presents the explanation of the contents about psychology and emotions of contemporary and social background which became the bases to the works and the ways to solve them, and interprets what is intended by me with my own emotional concept through main formative elements which I used in the works. Through this study, I will strengthen the contents of the work and its setting orientation. I hope to set the meaning of this dissertation on further development in my works by quoting a variety of reference materials.